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유도교육자 석진경의  
사상과 활동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 전공  
노 현 응

# 유도교육자 석진경의 사상과 활동

지도교수 나 영 일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 전공  
노 현 응

노현응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      |            |     |
|------|------------|-----|
| 위원장  | <u>권순용</u> | (인) |
| 부위원장 | <u>김유경</u> | (인) |
| 위원   | <u>나영일</u> | (인) |

## 국문초록

# 유도교육자 석진경의 사상과 활동

노 현 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현재 우리나라 유도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유도 기술의 발전, 유도인들의 노력에 의한 유도 저변 확산과 인재 양성 그리고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의 유도 이론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유도계는 불편한 이슈로 많이 기사화 되고 있고, 오랜 파벌 싸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도 강국인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나아가 유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유도를 현재의 반열까지 올라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은 유도 선각자들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많은 유도 선각자들 중에서 한국 최초 유도 10단에 오른 석진경(1912-1990)이 있었다. 이에 석진경의 유도사상과 교육활동에 관하여 그가 활동한 학교와 단체조직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유도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과 사상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석진경의 자서전과 유도 관련 문헌 및 신문, 잡지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한 생애사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석진경과 관련된 인물인 그의 차남 석준호와 동아대학교 제자인 정삼현을 심층인터뷰 하여 그의 생애사 전체를 조망해봄으로서 사실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석진경의 유도사상은 유도를 통한 한민족자강운동의 실천으로 민족주의와 박애주의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에 체화되었다. 1912년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석진경은 배재고보와 YMCA에서 유도수련을 시작하였으며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에 유학하여 법학과 강도관 유도를 배웠다. 귀국 후 석진경은 유도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유도가 일본의 가노 지고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가노 지고로의 유도사상을 받아드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유도의 사상과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건국치안대 경리부장과 6·25, 산업화, 민주화 전 세대를 겪으며 그의 사상적 기반을 다졌다.

석진경은 유도를 통해 올곧은 정신,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받는 영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인의 삶을 강조하였다. 즉 유도를 수련하여 나 자신이 강해지면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고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 겸손해지며 베푸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석진경은 제주 농업학교에서 지도자의 첫걸음을 시작하여 함경남도 함흥 영생중학교, 수도경찰학교 등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국유도지도자 양성을 절실히 느낀 석진경은 뜻이 맞는 유도인들과 1953년 대한유도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유도학교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본학문 공부와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1955년 석진경은 구라파유도사절단의 감독으로 한국 유도를 유럽에 전파하며 우리나라 유도인들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만의 유도 기술 형태인 되치기본을 완성하여 보급하였다. 귀국 후 1957년 동아대학교 유도부 초대 감독이 되어 18년간 교수로 봉직하며 부산 유도교육의 초석을 다진다. 또한 1960년 대한유도회 회장, 1962년

국제유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석진경은 여러 단체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975년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까지 유도계의 파벌싸움을 목격하기 싫어 전국적으로 유도 교육에만 집중하며 한국 유도계에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일본의 유도 기술과 심판 용어를 한글학자 이극로와 함께 한국어로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던 유도 조직들을 조선유도연맹으로 통합, 국내와 국외에 한국의 유도를 보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유도계가 유도의 경기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파벌싸움에 급급한 시점에서 석진경이 강조한 ‘기본공부’, ‘바른인성’, ‘체조의 중요성’, ‘올바른 유도의 사용’, ‘유도를 통한 성인이 되는 삶’은 전국의 모든 유도인들에게 되새기어 유도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이고 참신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석진경, 유도교육, 유도사상, 유도활동  
학 번 : 2013-23389

# 목차

|                                       |           |
|---------------------------------------|-----------|
| <b>I. 서론</b> .....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                      | 1         |
| 2. 연구의 목적 .....                       | 8         |
| 3. 선행연구 검토 .....                      | 8         |
| 1) 체육 인물의 체육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      | 9         |
| 2) 한국 유도사에 관한 연구 .....                | 12        |
| 3) 유도 인물의 사상과 유도 교육에 관한 연구 .....      | 18        |
| 4. 연구방법 .....                         | 23        |
| <br>                                  |           |
| <b>II. 이론적 배경</b> .....               | <b>26</b> |
| 1. 한국 유도의 발전과정 .....                  | 26        |
| 1) 일제강점기(1910-1945) .....             | 26        |
| 2)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1946-1953) .....    | 29        |
| 3) 한국전쟁 이후부터 서울올림픽까지(1954-1988) ..... | 30        |
| 4)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현재까지(1989-2017) .....   | 33        |
| 2.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과 사상적 기반 .....         | 35        |
| 1) 배재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               | 35        |
| 2) YMCA 소속 시절 .....                   | 36        |
| 3) 리쓰메이칸 대학 시절 .....                  | 38        |
| 4)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 이사장 시절 .....       | 39        |
| 5) 동아대학교 교수 시절 .....                  | 40        |
| <br>                                  |           |
| <b>III.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b> .....        | <b>42</b> |
| 1. 학교를 통한 교육 활동 .....                 | 47        |
| 1)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 설립 시절 .....        | 48        |
| 2) 동아대학교 교수 시절 .....                  | 51        |
| 2. 단체 조직을 통한 교육 활동 .....              | 56        |

|                                   |           |
|-----------------------------------|-----------|
| 1) 조선유도연맹(現 대한유도회) 이사 시절 .....    | 56        |
| 2) 구라파유도사절단(歐羅巴柔道使節團) 감독 시절 ..... | 59        |
| <b>IV. 석진경 유도사상의 특징 .....</b>     | <b>63</b> |
| <b>1. 석진경에게 내재된 기초사상 .....</b>    | <b>63</b> |
| 1) 유교사상 .....                     | 63        |
| 2) 박애주의 .....                     | 64        |
| 3) 민족주의 .....                     | 65        |
| <b>2. 유도사상 .....</b>              | <b>66</b> |
| 1) 가노 지고로의 술(術)에서 도(道)로 .....     | 66        |
| 2) 유도를 통한 성인(聖人)으로 .....          | 69        |
| <br>                              |           |
| <b>V. 결론 및 제언 .....</b>           | <b>73</b> |
| <br>                              |           |
| <b>참고문헌 .....</b>                 | <b>77</b> |

## 표 목 차

|                                |    |
|--------------------------------|----|
| <표. 1> 문헌 및 조사, 인터뷰 자료목록 ..... | 24 |
| <표. 2> 제자들이 묘사한 석진경 .....      | 43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유도(柔道)는 세계적인 경기대회와 본(本)<sup>1)</sup>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유도 강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국제유도연맹(IJF)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개수로 5위권 내를 달리고 있다.<sup>2)</sup> 또한 유도가 1964년 동경 하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결정된 후 한국 유도는 올림픽 경기에서만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금메달 11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6개, 총 43개를 획득하여 유도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대 한국 유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이학래(1990)의 「한국유도발달사」를 보면 현대 유도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일본의 강도관<sup>3)</sup> 유도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다른 유과의 유술 그리고 각 지방 경찰서에 10여 개의 유도장이 서울에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기에 보다 많은 유도장이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강도관 유도의 유입과정을 보면 첫째, 이제황<sup>4)</sup>은 1909년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처음으로 도장을 세워 홍무관 출신 나수영<sup>5)</sup>과 무관학교 장교 출신 유근수<sup>6)</sup>를 초빙하였다고 했다. 둘째, 아베 후미오(阿部文男)는 일본식 건물

1) 유도의 본은 유도의 수많은 기술 가운데서 기본이 되는 것을 선정하여 잡기(메치는 사람)와 받기(넘어가는 사람)가 서로 약속하여 그 기술의 원리를 동작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현대 유도의 본(本)은 메치기 본(15가지), 되치기 본(15가지), 부드러운 본(15가지), 호신술 본(20가지)등이 있다.

2) 국제유도연맹 <http://www.intjudo.eu/> (2017.4.01. 검색)

3) 강도관(講道館, Kodokan)은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가 1882년에 창설한 일본의 도장으로 현대의 유도를 ‘강도관 유도(고또칸 유도)’ 라고도 부른다(김주연, 2002).

4) 이제황(李濟晁, 서울출신, 1910-1981)은 유도10단의 유도인이다.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의 창설자로 우리나라 유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5) 나수영(羅壽泳, 출생미상)은 황성기독교청년회 유도사범이다. 유도를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불분명하다. 몇몇 무도학자들은 일본 육사에 유학하면서 강도관에 입문한 신순흡, 전영헌 등이 졸업하고 돌아와 일반인들에게 유도를 지도하였는데 그때 나수영이 유도를 배운 것으로 추측한다.

의 공장이 있는 오늘날의 서울 명동에 강도관 도장을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홍종(1977)은 1906년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sup>7)</sup>가 도장을 창설하였고 이것이 강도관 조선지부로 개칭되면서 유도가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일제 감정기 우리나라 유도 기관을 살펴보면 1910년 우리나라 최초 학교 유도부가 경성중학교에 설립되었고, 1921년 강낙원<sup>8)</sup>을 중심으로 조선무도관, 1923년 한진희<sup>9)</sup>를 중심으로 조선강무관, 1926년에는 강낙원, 한진희 외 세 명이 조선의 무도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선현무관을 창립하였다. 1931년 조선연무관, 1932년 조선유도연맹이 설립되었으나 1938년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된 일제는 우리의 체육활동을 내선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조선무도관, 조선강무관, 조선연무관 등을 일본 강도관 조선지부로 통합하였고 YMCA 유도부를 해산하였다.

광복 이후 1945년 조선유도연맹이 조선체육회에 가입하였다. 1948년 7월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조선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조선유도연맹이 대한유도연맹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 대한유도연맹과 조선연무관이 통합하여 대한유도회로 개칭하면서 “유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한다. 이는 국민체력향상과 산하단체를 통할 지도한다.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국민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의의를 내세웠다. 1951년 일본에서 국제유도연맹(International judo federation)이 창립되었고 1953년 한국에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아울러 전국 다수의 대학교 산하 체육대학에 유도부가 조직됨으로서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으로도 유도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6) 유근수(劉根洙, 출생미상)는 무관학교 출신으로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유도를 가르쳤다. 이후 나수영에게 사범 자리를 물려주고 대구로 내려가 연무관(鍊武館)을 창설하였다.

7)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후쿠오카 출신, 1874-1937)는 일본의 일본의 국가주의자, 우익운동가로 이용구와 결탁하여 일진회를 움직여 한일합방청원운동을 일으켰다. 정한론을 내세우며 강도관 유도를 조선에 보급하였다.

8) 강낙원(姜樂遠, 강원도 춘천출신, 출생미상)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활동한 체육인으로 한국 검도와 유도의 선구자였다. 1927년 조선씨름협회, 1934년 전조선아마추어권투연맹을 창립하였다.

9) 한진희(韓軫熙, 함경남도 함흥 출신, 1895-1976)는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919년부터 1923년까지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유도사범으로 활동하였다.

근대 유도의 교육은 1882년 일본의 가노 지고로<sup>10)</sup>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전통 유술(柔術)인 텐진신요류(天神眞楊流)와 기또류(起倒流)를 연마하였다. 두 유파의 교육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관하여 비교 연구하여 유술이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있어 훌륭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텐진신요류와 기또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좋은 기술은 고르고 위험한 것은 걸러내고 새로운 기술을 체계화 시켰다. 도(道)를 중요시하고, 도(道)를 넓히고, 도(道)를 강의하는 곳이라는 ‘강도관(講道館)’을 창설하여 정신수양과 신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유도(柔道) 교육을 시작하였다(김도준, 안병근, 1991).

한국에서 유도 교육이 처음 실시된 곳은 서울 YMCA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전택부(1993)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서 1906년 YMCA에서 월남 이상재<sup>11)</sup>선생이 “장사 백 명을 양성하자”고 하는 유도부의 창설 발언을 토대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YMCA 유도부의 첫 사범은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인 사범으로부터 유도 기술을 배우고 온 나수영이었다. 그에 의해 유도의 급격한 발전과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제황(1976)의 저서 「신유도」와 이학래(1990)의 「한국유도발달사」에서도 이상재 선생의 발언으로 근대화된 강도관 유도가 YMCA에 들어와 최초로 실시된 배경을 전택부와 같이 보고 있으나 시작된 년도는 1909년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YMCA 유도부의 창설로 유도 교육을 받아 후세에 유도를 통한 신체 교육을 양성했던 인물들은 다양하다. 다양한 인물 중 한국 유도 선각자이자 한국에서 1993년 최초로 유도10단을 수여받은 석진경이 있다.

석진경은 경기 광주시에서 태어나 서울 재동국민학교를 나오고 배재고보에 입학하여 15세에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유도의 수련을 더욱 원했던 그는 서울YMCA 유도부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다. 이후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법학부에 유학하여 유도를 병행하며,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會)<sup>12)</sup>에서 주최하는 하계 무도강습회에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참가하여 유도

10)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효고현(縣)출생, 1860-1938)는 일본의 체육교육자이며, 일본 체육계의 원로로서, 전통적인 유술(柔術)을 합리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강도관(講道館) 유도를 1882년에 창시하였다.

11) 이상재(李商在, 충남 한산군 출생, 1850-1927)는 대한제국의 정치인,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교육자, 독립운동가, 언론인이다. 1905년 이후에는 윤치호와 함께 YMCA를 지도하였다.

강습을 받고 4단으로 승단하였다(송영수, 2012). 조선인을 차별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간사이(關西) 학생유도대회 우승과 초고속 5단 승단으로 한국인의 기개를 떨쳤다. 당시 그의 5단 승진은 동아일보에 기사화 될 정도로의 대단한 업적이었다.

졸업 후 상공회의소의 조선공업협회에서 서기로 근무하면서 서울YMCA 유도교범(敎範)을 맡았다. 1937년 제주경찰서 유도 사범 및 제주농업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8년 함경남도 함흥 영생중학교에서 교사로 7년간 지내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한국 유도의 재건을 위해 옛 강도관 조선지부 건물을 인수하려고 노력하였다. 1946년 수도경찰학교와 철도경찰학교에서 유도 강사를 역임하였다. 1947년 중앙도장을 마련하고 조선유도연맹(現 대한유도회)을 창설하여 한국 유도에 배여 있는 일본 유도의 잔재를 한민족자강의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며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유도연맹은 대한유도연맹으로 변경되었다. 1948년 전국의 유도 유단자를 재정비하여 그동안의 수련 연한과 시합 실적에 기준을 두고 새롭게 단급심사제도를 정리하였다.

대한유도연맹의 방영두, 석진경, 이제황 등과 조선연무관의 김철삼, 신도환, 장경순 등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 11월 한국 유도의 발전적 대통합을 위해 대한유도회를 탄생시킨다. 1951년 1·4후퇴로 많은 유도인들이 피난을 갔고 흩어졌던 유도인들이 1952년 6월 부산에 모여 유도인의 통합과 유도 교육의 통일, 민족 구국운동으로서의 유도정신 재정립 등을 위한 유도 전문 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유도학교 설립에 찬성하였다.

석진경은 대한유도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인간행동을 바람직한 인간형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 설립하는데 부지의 마련과 비용을 수발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유도학교는 대한유도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물인 석진경, 이제황 등이 유도의 종합교육기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953년 6월 15일 개교하였다. 유도의 교육 목적에

---

12)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會)는 1895년 창설되었다. 일본무도의 진흥·교육·현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무도 관계 조직을 통제하는 정부의 외곽단체였다.

민족적 상무정신을 내세운 석진경, 이제황 등은 당시 한국전쟁의 시대적 상황에 무도교육기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사회의 발전, 질서와 안정의 이바지를 위해 설립하였다(송일훈 외2, 2014).

대한유도학교는 60여 년이란 시간을 지나오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유도의 전통을 잇는 세계적인 유도 명문 전공 학과로 발돋움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유도 이론과 실기를 통해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도전래의 사적 고증을 통해 문화적 가치와 과학성을 규명하여 유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 체득, 발전시켜 한국 유도의 국제적 우위를 고수하는 동시에 유도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체육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용인대학교 유도학과, 2012).

1955년 석진경은 구라과유도사절단(歐羅巴柔道使節團)에 소속되어 스위스, 서독, 프랑스 등 6개국을 순회하며 106일 동안 한국 유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1957년부터 1978년까지 동아대학교 초빙교수로 지내면서 정학균, 정삼현, 조재기, 하형주 등 한국 유도의 간판선수들을 육성하며 동아대 유도부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최상에 위치시켰다. 또한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유도부 창단 및 유도교과를 지도하였다(김의환, 2012). 1961년 대한유도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구라과유도사절단과 더불어 1962년 국제유도연맹(IJF)의 부회장, 1964년 도쿄올림픽 때에는 심판으로 활약하고 1967년 미국 솔트레이크 세계유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 1973년 미국 동부지역을 3개월간 순회하면서 한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였다.

석진경에 관한 연구는 학술논문에 나타나 있다. 「한국인 최초 유도10단 석진경의 생애와 사상」(정삼현, 조재기, 하형주, 유성연, 2010)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그의 관한 생애와 유도 사상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석진경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어 그가 교육받았던 배재고보, YMCA, 리쓰메이칸대학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영향과 유도사절단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며 쌓인 그의 내면에 체화된 사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생애 부분에서 유도 교육 활동을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받았으며, 후배와 제자, 유도 단체 조직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를 교육하고 지도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유도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유도 기술의 발전과, 많은 유도인들에 의한 유도 저변의 확산을 통한 인재 양성,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의 유도 이론 연구를 들 수 있다.

유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14<sup>13)</sup>년까지 한국 유도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 한국 유도 팀과 선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지부유도회를 필두로 초등학교 유도 팀은 남자 97개 여자 80개, 중학교는 남자 97개 여자 59개, 고등학교는 남자 59개 여자 44개이고,<sup>14)</sup> 대학교는 남자 24개 여자 15개, 실업팀은 남자 32개 여자 29개, 군인팀 2개가 있으며, 선수는 남자 2216명, 여자 1516명으로 총 3732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sup>15)</sup>

유도의 저변 확산으로 현재 생활체육분야에서 보면 전국에 사설 유도장이 현재 252개가 있으며, 시·도지부 안에 가맹된 도장들의 경기대회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개최되고 있다. 또한 전국 다수의 대학에 유도 동아리가 있고, 이들은 ‘전국대학동아리유도대회’ 등의 생활체육유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유도의 이론 연구를 보면 유도 관련 도서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인터넷교보문고, 인터넷 알라딘에서 검색하였을 때 1926년 유창호의 「조선무도관유도대의」를 시작으로, 1959년 방영두의 「구라파유도기행」, 1962년 백남옥의 「스포츠 유도」, 1978년 이제황의 「신유도」, 1985년 김정행의 「유도의 훈련방법」, 1990년 이학래의 「한국유도발달사」 등 현재까지 100여개의 단행본이 나왔으며,<sup>16)</sup> 유도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은 1968년 정삼현의 ‘한국유도의 기원 및 그 발달에 관한 합목적적 연구’를 시작으로

13) 대한유도회 홈페이지에는 현재 2014년까지의 팀 관련 현황만이 게시되어있다.

[http://judo.sports.or.kr/servlets/org/front/team/action/team\\_10](http://judo.sports.or.kr/servlets/org/front/team/action/team_10) (2017.5.14. 검색)

14)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 <http://www.kjhsjudo.or.kr/> (2017.5.14. 검색)

15) 대한유도회 <http://judo.sports.or.kr/> (2015.9.15. 검색)

16)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인터넷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search/SearchKorbookMain.jsp>, 인터넷알라딘 [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 (2015.10.5 검색. 키워드: 유도, judo, 柔道)

2014년까지 730여 편이 출간되었다.<sup>17)</sup> 유도 잡지로는 대한유도회 발행 공식 기관지인 계간 「유도」가 1986년 발행되어<sup>18)</sup>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1980년 후기 대한유도학교에 무도(武道)연구소가 설치되면서 한국무도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하였고, 무도의 하위영역인 유도 연구의 발전에도 힘썼다(박순진, 홍장표, 김의영, 장재이, 최종균, 1999).

위와 같이 한국 유도의 전체적인 현황과 정보를 봤을 때 한국은 유도에 있어서 강국인 면과 더불어 선진국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유도계는 좋지 못한 이슈로 많이 기사화 되고 있고, 오랜 파벌 싸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석진경은 흩어져 있는 유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였고, 노년에는 유도계의 파벌이 나누어지는 것이 싫어 전국적으로 유도 교육에만 집중하였으며, 자신이 주심을 보는 시합에서 동아대 제자가 판정까지 가자 판정패를 주며 다음부터는 한판승으로 이기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석진경은 한국과 일본에서 유도 기술을 배웠고, 일본의 유도 기술과 심판 용어를 YMCA 유도부의 스승인 장권 사범과 함께 한국어로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한국만의 새로운 유도 기술인 되치기 본을 완성하고, 국내와 국외에 한국의 유도를 보급하는 등 유도 강국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한국 유도사 문헌에 나타나지만 연구는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유도의 시작으로 돌아가 유도계의 큰 선생이 이루어왔던 사상과 교육 활동에 관하여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 유도의 초석을 다진 선각자 석진경의 유도 사상과 유도 교육 활동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석진경의 유도 사상과 교육이 현대 유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종목사, 인물사, 생애사 연구로 학계에 석진경의 생애와 유도사적 업적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운동수행적 측면에서는 유도 연구동

17)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http://www.riss.kr) (2015.8.5 검색, 키워드: 유도, judo, 柔道)

18) 이택민(2013), 「계간 「유도」(1986~2012)로 살펴본 한국의 유도 경기력에 대한 고찰 -국제대회 참관기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향이 과학적 연구에 편중된 시점에 한국유도의 정신과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인문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추구했던 교육 방침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한국 유도사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현재 한국 유도의 좋지 않은 상황을 헤쳐 나가 한국 체육계와 유도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도사에 나타난 석진경의 유도 교육 활동과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 최초 유도10단이자 한국 유도의 주요 기관 및 학교 유도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석진경의 유도 사상과 교육을 기반으로 현대 경기적인 측면의 자연과학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도의 본질을 밝히는 인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의 유도 사상과 교육 활동이 현대 한국 유도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유도 조직 단체에서의 활동, 대한유도학교의 설립에 중대한 역할과 국내, 국외에서의 교육, 지도, 시범 활동, 일본 유도 기술 용어의 한국어 정립, 유도 되치기 본의 완성 등이 후세의 유도 후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석진경이 활동한 기관, 단체, 시대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유도 교육 활동과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3. 선행연구 검토

유도 관련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관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조사한 결과 1962년에 시작되어 1982년도부터 양적증가가 이루어지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정찬수(2014)의 「유도 관련 학문적 연구동향 -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를 보면 2014년도까지 유도에 관한 논문 유형은 문헌연구 38편, 실험연구 178편, 조사연구 489편으로 대부분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 조사연구에 편중된 자연과학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유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유도사, 유도 인물의 사상과 유도 교육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도보다 큰 범주인 체육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유형과 비슷한 체육 인물의 체육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 1) 체육 인물의 체육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체육 인물의 체육 활동과 사상에 관한 논문들은 그들의 생애, 체육활동, 체육사상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루소, 로크 등 서양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각 체육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체육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것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병규, 유성연(2013)의 「한국 농구의 태두 정상윤의 체육활동과 사상」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농구에 입문하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조선인 농구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광복 이후 국가대표팀 농구 코치, 한국인으로 제1호 국제농구심판, 1948년 런던올림픽,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서 심판으로 참여하였고, 농구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한국에서 100명의 국제심판이 배출되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하였다. 체육행정에서도 조선체육회 상무이사, 1962년 동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제2차 회담 수석대표, 1966년 KOC 총무도 역임하여 한국 체육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정상윤의 체육사상은 인간생활의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윤리라고 하였으며, 행동윤리를 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기능공이 아닌 살아가는데 있어 정

력을 넣어주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김은영(2013)의 「이상백의 체육활동」에서는 해방 후 이상백의 체육활동을 고찰하여 한국의 스포츠가 체육 선구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정진되고 있음을 알리고, 그의 업적을 통하여 체육사상사의 연구에 있어 좌표로 활용될 수 있길 바라는 목적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상백의 체육사상은 아마추어 스포츠정신을 기반으로 보편적 이념, 순수한 열정을 내세웠다고 하였다. 체육활동으로 조선체육회 최초로 결성, NOC의 IOC인준 운동, 이기봉 IOC위원의 피선을 위한 노력, 아시아경기연맹 가입 승인 운동, 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안 등의 일을 하면서 한국 스포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논하였다.

김영남(2012)의 「야구인 장훈의 생애와 체육활동」에서는 제일 한국인 출신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하리모토 이사오의 이름으로 활약한 장훈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리그 역대 1위의 기록인 3,085개의 안타, 2,752경기의 출장, 통산 0.319의 타율의 대기록을 남긴 장훈은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KBO총재의 특별 보좌관을 역임하였고 한국의 야구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을 놓아주었다고 하였다. 제일동포야구단을 통해 아마추어 선수 시절 장훈의 활약은 한국 고교 야구의 활성화를 가지고 왔으며, 일본에서 역경을 이겨내며 일본 프로야구에서 보여준 활약은 한국의 후배 선수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KBO 총재 특별 보좌관으로 지내면서 제일교포선수들의 국내 프로야구 진출을 하게 하여 국내야구의 기술을 성장시켰다고 하였다. 장훈의 체육활동이 현대 체육에 주는 의미는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봉사정신, 한국인으로 살기 불리한 일본 환경에서 귀화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의 국적을 지켜 현대 체육에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논하였다.

손환, 최성진(2012)의 「여운형의 체육활동과 사상」에서는 여운형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체육활동에 관하여 중국 남경금릉대학 유학시절 약간의 장학금을 받을 만큼 학교 대표로 육상과 야구를 하였으며, 상해주재시절 복단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체육을 지도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제에 의하여 3년 옥살이를 한 후,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되면서 각종 스포츠

단체와 대회의 임원을 맡아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조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하였고, 해방을 맞이하고 조선체육회의 회장을 맡아 스포츠 외교를 통해 자주독립국가로의 위상을 알리며 한국 근대 스포츠의 초석을 다졌다고 논하였다. 여운형의 체육 사상에 관하여 해방이전 스포츠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해방이후 스포츠 활동을 통한 민족재건, 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 과학적 체육이론을 주창하며 엘리트 체육을 통해 우리나라 민족이 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논하였다.

김영남(2012)의 「프로골퍼 연덕춘의 생애와 체육활동」에서는 한국 최초의 프로골퍼이자 1941년 일본오픈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연덕춘의 생애와 체육활동을 분석하여 그의 체육활동이 한국 골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군자리 골프코스에서 골프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본 연덕춘은 처음 골프를 접하게 되며 감명을 받아 2년 동안 군자리 코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1934년 19세 때, 일본으로 골프수업을 받으러 떠났고, 3개월 만에 일본관동프로골프협회의 프로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1938년, 1939년 일본프로대회에서 3위를 하였고, 1941년 일본오픈에서 우승, 1942년 일본프로선수권대회에서 2위, 1956년 캐나다컵에 출전하여 24위, 1958년 국내 첫 프로골프대회에서 1위, 1959년 제2회 한국오픈에서 2위를 하였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 프로양성에 힘을 쏟았고, 한국의 초창기 프로골퍼는 대부분이 그의 제자로 골프에만 몰입하는 정신자세, 건전한 육체 겸비, 꾸준한 연습이 골프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골프관을 제시하였다고 논하였다.

이상우(2010)의 「마라토너 남승룡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마라토너 남승룡의 생애와 체육활동이 한국육상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1912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1921년 순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 졸업 후 협성실업학교 입학 후, 1931년 양정고보에 편입학 했다고 한다. 1933년 일본유학을 결심하여 아사부 상업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할 무렵 도쿄의 메이지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스카우트 되었다고 하였다. 기다바라케라는 일본 귀족을 만나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베를린올림픽에서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베를린 올림픽 이후 학업을 마친 남승룡은 귀국

후 후진양성과 전남마라톤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였다고 했다. 현실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남승룡의 체육 사상을 보면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였고 후배들에게 정신이 헤이해지면 안되고, 책을 가까이하며, 수업을 받고, 술과 담배를 금지하였으며, 선·후배 사이에 예의를 중시하라는 5가지 덕목을 강조했다고 논한다.

김동규 외2(2004)는 「소강 민관식의 체육활동 및 체육사상」에서는 대한체육회장, 문교부장관을 지내면서 학교체육, 엘리트스포츠, 대중스포츠에 혁신을 도모하였고, 기본적으로 부국강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국강병 사상을 토대로 청소년 체력을 강조하며 체력검사제를 실시하였고 코치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스포츠 트레이닝 과학화, 태릉선수촌, 체육회관 개관, 대한체육회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의 신설과 신인발굴을 단행하였다고 논하였다. 또한 삶의 풍요를 위해서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며 대중스포츠의 발전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러한 정책은 엘리트스포츠 인구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체육 인물의 체육 활동과 사상 관련 연구들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세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치관과 행동을 당연히 변화시켜주게 마련이므로 인물사에 있어 꼭 연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고 한국 유도사와 넓게 보면 한국 체육사의 발전에 공헌을 한 석진경에 대해 심도 깊게 조명해 볼 것이다.

## 2) 한국 유도사에 관한 연구

한국 유도사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한국 유도의 기원, 발달, 발전과정, 한국 유도경기의 발달과정, 유도 기술의 변천과정, 가노지고로와 강도관 유도의 사상과 스포츠화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도의 학문화는 1882년 일본 가노지고로가 신체의 교육을 위하여 전장에서 사용하는 유술을 유도로 체계화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스포츠 종목이 발전되고 보급되었는데 유도도 대중화되면서 1951년 국제유도연맹(IJF)이 조직되었으며, 1956년 제1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와 1980년 제1회 세계여자유도대회가 개최되면서 수련인구가 점차 많아져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권원수, 1989).

한국은 대한유도학교가 1953년 설립되고 무도연구소와 전국 다수의 대학에 유도부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유도가 대중화되었다. 유도는 경기화 된 스포츠이자 자아수련 목적의 무도로서 수련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신체교육의 계승을 위해 학문화를 추구하였다. 유도는 정신, 수련, 경기화의 상호 체계가 잘 이루어져 학문적으로의 가능성과 적합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유도의 학문화가 지속되면서 유도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논문들이 유도인들로부터 많이 출간되었다. 유도 관련 단행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2권이 출판되었다. 조사된 단행본들은 유도의 실기적인 부분을 기술한 전문서 55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번역서 13권, 보고서 15권, 인문서 6권, 기타 18권으로 분류되었다.<sup>19)</sup> 유도의 역사만을 다룬 단행본은 인문서 6권에 포함되어 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유도사 관련 논문은 한국 유도의 발달과정, 변천과정이 주를 이루었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송일훈 외2(2014)는 「한국유도 발달양상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함의 -대한유도학교 창립 배경을 중심으로-」에서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가 전인교육 양성을 위한 체육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지·덕·체’ 중심의 교육을 지향했다고 하였다. 대한유도학교의 설립자는 개인이 아닌 ‘대한유도회’라는 단체였다고 논의한다. 정신수양의 측면이 강한 무도스포츠인 유도를 통하여 정신교육의 중요성과 도의(道義)를 갈고 닦아 사회에 이바지 하는 인물을 양성하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자금과 건물 또한 없었다. 오직 학교를 설립하여 유도를 통한 참된 인간을 양성하려는 대한유도회 이제황과 석진경 등의 확고한 유도 교육 사상, 이념, 신념이 있었기에

19) 나영일 외2(2017). 『한국의 스포츠학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3.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한유도학교의 설립은 한국의 유도 교육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실기, 이론, 연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립이념에 따라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무도체육의 다양한 의미를 물려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유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중점으로 두고 논의 한 연구들인 이두일(2010)의 「현대 유도의 기원 및 한국유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김도준, 안병근(1991)의 「한국유도의 역사와 현황분석」, 김종달(1998)의 「유도의 기원에 관한 제학설」, 이홍중(1977)의 「한국유도와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이병익(1977)의 「한국 유도발달사의 연구」 등에서는 한국 유도의 기원은 한국 유술인 수박(手搏)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일본에서 수입되었다는 주장을 이야기 하면서 오늘날 유도의 전신인 유술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쓰였다고 논한다. 현대의 스포츠화 된 유도가 생기기까지 일본 강도관 유도의 성립과정, 일본 강도관 유도가 한국에 도입되어 일제치하를 거치며 한국의 유도로 변화되는 과정, 대한유도회 창설, 대한유도학교의 설립과정, 대한학생유도연맹의 창립과 발달, 1986년과 1988년에 개최된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대회를 거치며 급성장한 한국 유도, 국제유도연맹의 변천사, 한국 유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관하여 논하였다.

한국 유도의 첫 해외 시범단이자 사절단인 ‘구라과유도기행단’에 관련된 연구로 임석원, 조문기(2009)의 「‘구라과유도기행’으로 본 한국 최초의 유도 사절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구라과유도사절단’이 대한민국 유도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 유도의 강함을 유럽에 알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확실하게 나타내는 국가의 의도가 있었다고 논하였다. 또한 사절단의 선발과정에 있어 시합을 하였다는 사실과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교통편의 어려움, 사절단의 큰 활약을 질투하였던 일본인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절단의 활약으로 한국 유도인들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 지도자로 진출하였고, 일본이 이끌어가던 세계유도에 대한민국이 자리하여 후일 1995년 박용성이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논하였다.

송해신(2004)은 「무도유도와 스포츠유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에서 무도로서의 유도과 스포츠로서의 유도를 비교하면서 무도가 점차 스포츠화 되어가며 무도에 내재되어 있는 동양 중심의 전통 사상과 문화가 갈수록 서구화 된다고 하였다. 이는 무도로 정신수양, 신체발달, 인격수양, 교육적 목적이 아닌 스포츠에 나타나는 경쟁심, 승리에 대한 집착, 상업주의로 인해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경기규정을 바꾼다고 논한다. 또한 스포츠화 된 유도에서는 승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특정 기술에 전술적 맥락에 관한 이해에만 그치고 기술 숙련을 통하여 더 진보해가는 인간완성차원으로의 정신적 사상은 수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 서양스포츠의 개념과 문화에 기반으로 무도스포츠가 발전되었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유도의 전통적 동양 정신과 기술에 내재된 사상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즉, 승패 결과만 중요시하고 무도정신의 본질을 잃어가는 유도의 스포츠화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 여자유도의 변천과 도입에 관련하여 김학덕 외3(2007)의 「한국 여자유도의 변천과정」, 김주연(2003)의 「한국 여자유도의 도입에 관한 사적 고찰」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유도 도입은 기존에 1920년대에 이루어졌고 1934년 한국 여자유도의 여자부가 신설되었다는 잘못된 내용을 1933년 봄으로 시정하며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여자유도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였다. 삼육주의, 아동·소년의 신체교육, 여성체육, 무예교육사상의 개화기 체육사상이 한국 여자유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에 상관없이 부국강병을 위해 여성체육과 아동체육에서도 나타났으며 1920년대 소녀들로부터 여자유도의 도입이 시작되었다고 논하였다. 또한 한국 여자유도의 변천을 경기적 성과 측면에서 논하며 여자유도가 엘리트 선수를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유도를 접하지 않은 일반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유도 스타 마케팅을 통한 홍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에서 재미있는 유도 교육 보급, 여자 사범의 확대, 다양한 웰빙 운동 방식의 유도, 무거운 유도복에서 단조로운 도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유도 기술 변천에 관하여 저술된 박경호(2002)의 「유도기술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대 유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일본 유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현대 유도가 ‘부드러움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일본 유술 또한 같은 원리를 강조하였다고 논한다. 1887년부터 강도관 유도의 기술은 손, 허리, 발, 바로 누우며 메치기, 모로누우며 메치기 기술에 충실하여 교육하였고, 1895년 42개의 메치기 기술이 제정되었다. 1920년 유도 교육에 있어 사용되지 않는 기술을 제외하고 자유연습방법과 지도법을 합쳐 새로운 기술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신(新) 강도관 기술이 제정되고, 1995년 국제유도연맹에서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어 제정되었다고 했다. 일본의 각 유과 유술의 정리, 시합규칙 변화, 심판 및 판정의 공정화, 국제적 조직 구성, 국제스포츠경기, 스포츠본질 적용, 경기의 안정성 강화, 유도 기술 본질 부각, 기술용어 국제화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했다.

조용철(2003)의 「한국유도경기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시대의 우리나라 유도경기발달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945년 해방 후 한국 유도는 자체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 조직간의 갈등과 경기기술의 변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논하면서 해방 이전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해방 이후의 한국 유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현대 유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도 경기의 기술변화, 경기관리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 유도의 스포츠사적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였다.

김경민(2002)의 「한국 중·고등학교 유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에서는 광복 후 부터 2001년까지 시대상황, 체육정책 변천, 대한학생유도연맹과 한국중고유도연맹 설립 및 취지, 각종 주요대회 전적, 우수 유도부의 발자취 등을 알아보았으며 중·고등학교 유도가 청소년 유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광복 후 부터 5.16군사정변 이전까지 대한학생유도연맹은 지방에 유도 활성화를 시키고자한 것 이외에는 없었다고 하며, 학생유도단체의 주관, 후원 하에 열린 유도 대회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학교들이 한국전쟁과 4.19의거의 불안한 시기에는 미비한 체육정책, 각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체육교육에 따라 침체시기를 겪었다고 하였다. 정책 지원이 밀받침된 1970년 초반과 80년대에 신홍 학교 유도부, 각 지역의 체육중·고등학교의 새로운 유도부들이 나타났다. 대한학생유도연맹(1946-1971)은 학생자치단체의 성격으

로 출범하였지만, 한국중고유도연맹(1972-현재)은 정부와 상급체육단체의 요구에 의해 체계적인 조직으로 탄생되었다고 한다. 한국중고유도연맹은 중·고등학교에 건전한 유도 교육을 시켜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발굴을 하는 단체로 거듭났다. 학생유도단체들은 각종 대회의 개최와 후원, 지방유도발전을 위한 사업, 선수관리, 장학사업, 해외 학생 유도 교류를 실행하며 학생유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논하였다.

이성진(2001)의 「일제하 한국 YMCA유도 발전과정」에서는 일제의 무단통치시기(1910-1919), 문화통치시기(1919-1937), 황국식민통치시기(1937-1945)의 3시기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규명하였다. 무단통치시기에는 일제가 강제로 한국을 합병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하며 정책을 펼쳐나가던 우리에게 있어 민족시련의 시기에 황성기독교청년회는 유도반을 만들어, 유도의 사상인 자기완성, 자타공영, 정력선용을 한민족자강 수단으로 받아드리며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YMCA가 주최한 유도 집회는 1914년 6월부터 1915년 5월까지 1년동안 196회로 2,627명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1916년 5월 6일에 한국 YMCA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한국 유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문화통치시기에는 제2의 조선교육령에 속하는 기간으로 18,520명에 이르는 유도수련자가 1923년에서 1925년까지 늘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YMCA가 주최한 유도대회를 통하여 민간단체가 시합을 주관하였고, 유도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대한 성과를 남겼다고 하였다. 황국식민통치시기에 일제는 우리에게 민족말살정책을 펼쳐 1938년 우리의 모든 체육단체가 일본의 수하 예속되며 YMCA유도부도 일본강도관조선지부로 통합되었다. YMCA유도는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강도관유도가 유입되었을 때, 한민족자강의 수단으로 이를 발전시켜 한국체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민족주의 체육진흥, 사회체육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논하였다. 일제강점기 한국 유도와 유도경기에 관한 연구인 최종삼, 최용배(2000)의 「문화통치기의 유도에 관한 고찰」과 최종삼, 최용배(1999)의 「무단통치기(1910-1919)의 한국유도경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배체제 아래 한국의 유도와 유도경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하였다. 무단통치기에 국권이 상실된 우리나라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병식체조를 유입하였지만, 일본에 의

하여 구미제국 유희활동, 유럽체조, 식민지 교육 목적인 황국식민정책을 준비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수의과목으로 채택된 유도는 식민치하였던 우리나라 학교에도 유입되어 일본인들의 유도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영향을 받은 일본 강도관유도는 도장을 우리나라에 세웠으며, 한국은 비록 강도관 유도를 받아들였지만, 청소년에게 유도를 육성하여 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문화통치기(1919-1937)에는 3.1운동과 같은 항일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은 교육정책을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 후반 학생유도단체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각종대회의 유치와 사설도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계열과 친일세력의 군인, 경찰 유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었다고 예측하였다. 당시 각종 신문의 기사에 언급된 한국유도인의 이름과 일본에 대항하려는 간접적 승부의욕이 강한 시기라고 하였다. 일본강도관의 승급, 승단만이 아닌 한국 자체의 승급과 승단이 이루어지고, 여자유도 또한 보급되었으며, 한국인 중심으로 유도대회가 개최되어 국내 유도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논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한국 유도사와 관련하여 주로 변천과정과 발전에 관하여 제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유도 인물과 관련된 생애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행본으로는 이학래(1990)의 『한국유도발달사』로부터 한국 유도와 유도인들의 전반적인 발전과 활동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유도 본질의 연구를 깊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유도 인물의 사상과 유도 교육에 관한 연구

유도 인물의 사상과 관련된 연구는 유도를 창시한 일본의 가노지고로와 관련하여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유도 인물의 사상 관련 연구도 나오고 있지만 가노지고로의 유도 사상과 비교하면 질(質)적인 면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재범(2015)은 「유도인들의 생애를 통한 한국 유도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40년 이상 유도를 수련한 유도인 네 명의 생애와 관점을 통해 유도의 교육사상, 교육적 가치, 한국 유도가 가진 특성을 알아보았다. 네 명의 유도인은 유도 입문과 경력은 달랐지만 그들의 유도수련과 유도 교육의 실천은 유사하였고, 유도를 수양함으로써 신체단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함, 예의를 몸으로 익혔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도를 수련하여 평생체육, 평생교육으로 유도의 교육적 면모를 부각하였다. 이들은 유도의 사상적 측면에서 가노지고로가 강도관 유도의 사상인 정력전용, 자타공영을 인지하였지만 이제황이 정립한 한국 유도사상인 ‘도의상마(道義相磨) 욕이위인(欲而爲人)’, 즉 도의를 갈고 닦아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자는 사상을 유도의 유(柔)의 원리를 통해 신체와 삶에 실현하고 그것이 유도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고 논한다. 이들의 교육사상은 항일유도로써 수련된 한국 유도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일본에게는 승리하여야 한다는 태도와 반일주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현대 유도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가노지고로의 유도 사상과 강도관에 관련하여 한국의 유도 관련 연구자들은 오주호(2007)의 「가노지고로의 사상이 현대유도에 미치는 영향」, 김병극(2004)의 「강도관 유도사상과 유도의 스포츠화 과정」에서 가노지고로가 강도관 유도를 창시하기 전까지의 학당 시절 공부한 유교사상과 대학에서 배운 서양의 공리주의에 관한 이론, 당시 사상가 스펜서의 ‘지육·덕육·체육’을 토대로 하고, 실기에서는 일본 유술인 텐진신요류와 기또류의 장점을 접목하여 강도관 유도를 창시했다고 하였다. 강도관 유도 교육의 목적으로 체육법, 수신법, 승부법을 구분하면서 신체교육에 덕성함양, 지력연마, 유도의 승부이론을 인간이 생활하는데 응용하여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도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력선용(精力善用), 자타공영(自他共榮)의 사상을 최고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화 되어가는 강도관 유도의 변화를 제1기 강도관 유도의 성립을 기점으로 이전의 유파와 유술, 제2기 강도관 유도의 성립에서 국제유도연맹창립시기, 제3기 국제유도연맹창립 이후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유성연, 조재기(2009)의 「가노지고로의 강도관

유도 사상과 유학」, 유성연(2009)의 「유술에서 柔의 의미와 가노지고로 유도사상에 관한 고찰」, 조재기(2008)의 「가노지고로 유도의 교육사상」, 김제범(1999)의 「유도창시자 가노지고로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노지고로의 생애를 통한 그의 사상, 교육, 지도체계, 방법 등을 보았다. 가노지고로는 1877년 18세 때 일본 유술인 텐진신요류와 기또류를 수련하였다. 두 유술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각 유술의 원리를 연구하여 텐진신요류에서 급소치기와 굳히기, 기또류의 던지기 기술을 신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대성하였다.

그는 신체 교육을 위하여 몸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전장(戰場)을 위해 연마되었던 유술들의 위험한 기술들은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유도의 지도체계,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유도의 목적으로 자유연습, 본(本)의 연습을 통한 승부의 방법, 유도를 통해 지육과 덕육을 기를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수년간 하여 심신의 단련과 승부의 수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었다고 했다. 1882년 유술에서 신체를 교육하고 경기 또한 할 수 있는 체육과 스포츠적인 면모로 바뀐 강도관 유도는 1883년 가노지고로가 강사로 있던 학원에서 학교 체육으로 교육되었고, 1911년 중학교의 교과목으로 허가되었으며 1914년 제1회 전국고등전문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였다. 가노지고로는 1922년 강도관 문화회가 발족되었을 때, 유도를 통한 승부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뿐만이 아닌 모든 사물에도 적용되고 응용이 가능하다는 ‘심신의 힘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道)’로서 ‘정력선용’의 정신과 이러한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며 나와 남을 초월하여 하나로 돌아간다’는 ‘자타공영’의 정신을 내세우며, ‘정력선용, 자타공영’ 정신을 유도 수련의 근본적인 사상으로 정립시켰다고 하였다. 유도는 1930년 제1회 전일본유도선사권대회의 개최, 1931년 중학교의 정규 필수과목 채택, 1936년 보통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부터 교육되기까지 이른다 하였다.

가노지고로는 유도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 중국, 미국, 유럽을 순방하며 강도관 유도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했다. 가노지고로는 교육자로서도 23세에 학원의 강사, 고분강(強文館) 창설, 32세에는 문부성의 참사관과

제5고등학교 교장을 역임 하였으며, 계속하여 제1고등학교장, 고등사범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과 학교체육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논한다. 체육인으로서의 가노지고로는 50세(1909년)에 국제올림픽위원, 52세에 일본체육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국민체력향상에 전력을 다하였고,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부터 꾸준히 올림픽대회와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근대 올림픽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1938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올림픽 회의에 참석하여 동경올림픽 유치를 달성하고 귀국 중에 79세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했다.

유도의 창시자, 근대 체육의 선구자, 위대한 교육자로 일본에서 평가되는 가노지고로의 '정력선용, 자타공영' 생애와 사상은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유도인들에게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승부법으로서의 유도', '체육법으로서의 유도', '수심법으로서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그렇다면 유도의 유(柔)는 어떻게 나왔을까? 유성연(2009)은 유도 사상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가노지고로가 제창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통하여 설명하면서 일본 유술의 사상은 노자(老子)의 철학인 도교(道敎)에 이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도교의 경전으로 불리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자연에서 유래된柔의 의미를 여러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삼략에 나오는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제압한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원리를 기본적인 이념과 태도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학래(1990)는 노자와 삼략에 나오는柔의 사상이 17세기 초 일본어로 주쥬츠 또는 야와라(柔)로 불리며 일본 유술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더하여 유술시대에서柔의 의미는 중국 선진 무술 사상을 모체로 하여 기술에서의 기(氣)와, 힘의 질(質), 구체적으로 허세(虛勢)가 없는 힘, 상대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기법이 나타났다고 논한다. 가노지고로는 이러한柔의 원리를 옛 것을 통해 새로운 사고와 방법을 찾아 '부드럽게 상대방의 힘에 순응하여 동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리를 취하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스스로 체험, 실험, 각성하여柔의 원리를 완성하였다고 논하였다.

임석원, 조문기(2012)의 「일제강점기 경과 한진희의 유도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진희의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별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체육 활동에 수영 지도자 활동, 비연(飛鳶)에 심취 등을 논하였다. 한진희는 체력 육성을 통해 강건한 신체를 가지는 것이 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방향이고 이것이 곧 독립의 길로 가는 민족 저력의 신장이며, 이러한 힘을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유도라고 생각했다고 논하였다.

임석원, 조문기(2009)의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 사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선연무관을 개관한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 사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일본에서 유도 수련을 하였던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며, 귀국 후 경성에 조선연무관을 개관하였고, 해방 후에는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경석의 유도 사상으로는 단순히 체육 육성을 위한 유도가 아닌 지(智)와 덕(德)을 병행하여 전인적 교수법을 주장하였고, 이것을 망국 회복의 역량 양성방법으로 삼았으며, 여성에게 유도를 한국 최초로 보급하였다고 논하였다.

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유도 인물의 사상과 유도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현대 유도의 창시자 가노지고로에 대한 유도 사상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반면 한국 유도인들의 유도 사상과 관련하여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들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한국 유도인들이 유도 활동을 했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이 속해있던 조직, 단체를 연구하여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도 교육 관련 연구로는 송준홍(1999)의 「유도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을 보면 유도를 통한 체격, 체력, 기술, 경기력 향상 연구에서 벗어나 유도의 교육적 잠재 가치와 교육철학사상을 탐색하여 유도교육의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도수련을 통한 성격과 인격도야에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을 포함시키며, 호신의 방법으로 유도를 교육하여 수련자의 내적인 면의 가치를 변화시켜 교육학적 측면에 잠재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도 교육 장소인 도장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겸양지덕을 쌓고, 존경, 관용, 상부상조하는 태도를 배우며, 인성교육 함양,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정신을 교육할 수 있다고 논한다. 유도의 교육적 가치를 행(行)교육으로서의 유도, 도(道)교육으로서의 유도로

구분하여, 행교육은 유도의 자연체를 바탕으로 몸을 강건하게 하며, 마음의 올바른 자세, 태도, 예의, 바른 몸가짐을 가지게 하여 사회관계를 상호보완하는데 근원적인 힘과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인성적 측면을 강조한 도(道)교육은 유도의 격투기술, 신체운동, 경기의 개념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학교에서의 경기력 향상의 목적인 유도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설유도장이 증가하고 생활체육으로의 유도 교육이 필요하니 교육으로서의 유도 가치관 정립이 확고히 되어야 된다고 논하였다.

일본 강도관 유도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 한국 유도도 그 기간만큼 발달되어 왔지만 유도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도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도 선배들로부터의 교육 가치가 잘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 검토 첫 장에 서술했듯이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유도 관련 연구는 경기적 측면인 자연과학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유도의 역사와 가치 및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한 유도인들의 활동과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물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 4. 연구방법

본 논문은 석진경이 살았던 시대와 당시 한국 유도의 배경을 통해 그의 사상과 교육 활동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한 생애사 연구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의 정의 및 개념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생애사는 한 개인의 전 생애 발달과정에 대한 삶의 역사를 외적인 삶의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적 내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시간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포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영천, 2012).

생애사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에 걸친 변화의 효과나 삶의 과정에 따른 운동을 자료로 수집해야한다. 또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타자의 삶에 대한 객관적 서술 강조에 기반을 두어 생애사 연구의 엄격성을 따름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가영, 2008).

연구 자료는 석진경의 생애, 유도사적 업적 등을 담고 있는 자서전을 포함한 단행본, 논문, 신문 및 잡지, 사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유도사 자료이며 주로 2차 자료에 해당된다. 또한, 문헌에 대한 고증 및 비공개된 자료 수집을 위해 석진경의 대한유도학교와 동아대학교 제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다음 <표-1>은 연구대상 및 기타 자료 목록이다.

표-1. 문헌 및 조사, 인터뷰 자료목록

|        |  |
|--------|--|
| 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서전 및 단행본:</b> 석진경 「나의 인생, 나의 유도」,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60년사, 동아대학교 40년사, 한국유도발달사, 신유도강독서, 현대유도론, 구라과 유도기행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논문:</b> 석진경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논문집, 유도 관련 학술지·학위 논문</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문:</b>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자유신문, 스포츠동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잡지:</b> 유도춘추, 계간 「유도」, 삼천리</li> </ul>  |
| 사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유도회, 용인대학교, 동아대학교, 단행본</li> </ul>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li> </ul>  |
| 인터뷰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준호 (석진경 子, 現선문대학교 이사장)</li> <li>· 정삼현 (석진경 동아대학교 유도 제자, 前 동아대 교수)</li> </ul>                                   |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한국 유도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본 논문의 핵심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석진경의 교육 활동과 사상의 기반을 검토하였다. 특히 석진경이 활동했던 학교,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외적인 삶과 내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석진경의 기반 배경을 통하여 그의 유도교육 활동을 학교와 단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석진경 유도사상의 특징을 기초사상과 유도사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과 유도사상의 사실적 가치를 통하여 한국 유도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논의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 유도의 발전 과정

#### 1) 일제강점기(1910-1945)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한반도가 직접적인 지배에 놓였던 시기로 일제의 지배정책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무단통치기(1910-1919), 문화통치기(1919-1931),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로 지칭하여 구분한다.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일본제국주의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에서 한일합방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도관 유도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볼 수 있다(최종삼, 최용배, 1999).

무단통치기(1910-1919)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경성중학교에 1910년 유도부가 설치되었다. 당시에 강도관 유도는 일본에서 ‘유술(柔術)’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명칭으로 채택 되었다. 학교 유도부에서는 검도장 일부에 다다미 50~60장 정도를 깔고 학생들의 여가를 위해 시작되었고, 1912년 4월 무덕회 사범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유도부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최종삼, 최용배, 2000).

이후 1913년 2월부터 학생들의 훈육을 위한 장점을 인식하여 9월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913년과 1914년에 걸쳐 전교생 500명중 300명이 유도를 수련하였다고 했다(이학래, 1989). 학교 유도부에서는 예절을 중시하고 승패에 헛되게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를 통해 유도가 보급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강도관을 앞세워 한국과 중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유도관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해 한국인들은 비록 강도관 유도를 받아들이지만, 일

본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청소년들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유도를 육성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일본의 영향이 있는 병식체조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 교육차원에서 강조한 사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주연, 김은정, 2011).

이 시기에 황성기독교청년회는 중앙기독교청년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본 YMCA의 산하에 놓이긴 하였지만 일제의 무단통치기에도 과감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사회교육은 일본인에 의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중앙기독교청년회는 한국인들에 의해 체육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4년 6월부터 1915년 5월까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체조 다음이 유도였기 때문에 한인들에게 유도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성상수, 2006).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유도반 설치하는 일본 강도관 유도에 대비하는 한국 유도의 등장이기도 하였으며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의식 함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문화통치기(1919-1931)에는 일본인들에게 학교유도가 보급되었으며, 1927년부터 일본인들의 대륙침탈을 위한 국방체육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한국 유도 활동에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단증이 수여되었다. 1922년 6월 25일 조선무도관 관계자들은 특별히 우수한 성적의 7명에게 유도1단이라는 자격을 주었고, 1924년 1월 31일에 유도에 수양(修養)이 있지만 급의 형식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강무관에서 정급시험을 치르게 하였다(조용철, 2003).

1926년 10월 16일 경운동 천도기념관에서 유도연무대회가 개최되었다. 낙법, 자유연습, 메치기 본, 꺾기, 1인 대 10인의 시합, 심외운동소봉, 아령, 인도봉 등이었다(동아일보, 1926.10.16.).

조선무도관은 1927년 모한연습증과 진급증 수여식을 수련에 임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27.2.12.). 같은 해,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제7회 경찰관 무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일본인 경찰관이였다. 당시 대회에서 한국 유도인으로 경북의 이병달과 최찬이가 참가하였고, 이병달은 고단자 홍백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경성일보, 1927.5.23.). 이를 계기로 경찰관무도대회의 한국 유도인들의 출전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1928년 한국 유도인들은 유도 용어와 술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포하고 보급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5월 8일 강도관 조선지부가 주최한 '제2회 단체 단외자 우승기전'에서는 결승으로 본정경찰서와 경성사범학교가 맞붙었는데 본정경찰서 소속으로 한국유도인 최유복, 최홍간의 활약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다(경성일보, 1928.5.8.).

1932년 조선연무관이 개관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도의 보급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연무관 강연회를 열어 의학상 유도관, 야사상으로 본 유도, 조선인과 유도라는 강연을 함께하고 연무로 '낙법, 공방법, 극의 형(유술의 극치, 호신의 본), 호신술, 관절법, 격투 대 유도전, 중국36기' 등을 선보였다(동아일보, 1932.6.11.). 조선연무관은 이후 회원 수용을 감안하여 도장을 신축하고 승급 및 승단정을 가졌다. 또한 여성회원을 모집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유도는 남자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주 3일 가정주부와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도 수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조문기, 임석원, 2012).

중앙기독교청년회 유도부 창설 25주년을 기념하여 1933년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승단승급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석진경이 3단에 승단하였고 1934년 7월 12일에 한인직이 3단에 승단하였다. 이후 1934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승단승급전에 이인덕과 석진경이 4단으로 승단되었다. 이후, 1936년 6월 이인덕과 석진경은 5단으로 승단하였다(동아일보, 1936.7.3.).

일제강점기의 탄압이 절정으로 치닫던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에는 일본의 군사적인 실전 훈련의 목적으로 유도를 변질시켜 이를 수단으로 삼았다. 1938년부터 한국인들이 활동했던 체육단체들은 일본의 예속 아래로 들어가며 대회를 치르기 힘들어졌다. 또한 기존 4개 도장(중앙기독교청년회 유도부, 조선연무관, 조선강무관, 조선무도관)을 강제로 강도관 조선지부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강제 편입은 '조직체가 불완전하며 내용이 빈약한 체육단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다(조선일보, 1938.5.12.).

1941년 9월 제10회 동경조선유학생 무도회 주최 '전 조선 중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경기에 출전하는 한국인 유도선수들은 일본으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며 출전하였고 우승까지 내어주었던 치욕의 대회였다

(경성일보, 1941.9.14.). 이후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모든 체육대회는 폐쇄되었고 이 당시 열린 유도대회는 국가적 전투력 강화를 위한 유도대회였다.

## 2)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1946-1953)

해방 이후 많은 인물들이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자 조선체육회 회장이었던 여운형은 치안유지를 위해 1945년 8월 16일 휘문중학교 강당에서 건국치안대를 조직한다. 당시 YMCA 체육부 간사이자 유도 사범이던 장권을 대장으로 하여 동원부장 이경석, 경리부장 석진경, 소방대장 방영두 등으로 해방 조국에 일조하는 유도인들이 있었다(임석원, 조문기, 2009).

건국치안대에 일조하던 유도인들은 1945년 9월 15일 YMCA회관에서 한국 유도 중추기관을 결성하기 위한 발기총회를 개최한다. 여기 포함된 발기인들은 1938년 일제강점기의 강도관 조선지부로 강제 통합되었던 사설도장 대표로 YMCA의 이인덕과 석진경, 조선무도관의 김육식과 김상조, 조선강무관의 김근찬과 김병룡, 조선연무관의 배경열과 이동수 8명과 경찰유도 대표 배경립과 박정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학래, 1990).

이 당시 모임의 목적은 한국 유도의 중추기관이 될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었고 명칭은 조선유도연맹으로 하고 서울 중구 소공동 11번지에 있던 강도관 조선지부를 인수하여 회관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였다.

강도관 조선지부 인수라는 큰 임무를 받은 석진경과 이원영은 며칠 후 수임사항을 이행하려 강도관 조선지부를 찾아갔는데, 당시 강도관 조선지부측의 도장 인수조건은 삼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였고 조선유도연맹 측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한다. 강도관 조선지부와 면담을 요구하여 찾아가니 강도관 조선지부에 조선연무관의 간관이 붙어있었다(이학래, 1990).

이에 대한 논쟁 끝에, 1947년 7월 을지로에 있는 학원건물을 인수하고 수리하여 조선유도연맹의 간관을 걸었으며 한국 최초의 유도 중앙 도장이 생겼다. 장소를 마련하고 한국 유도계의 구심점을 잡았으나 국내 여러 조직으

로 분산되어 있던 유도인들을 결속시키는데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강도관 조선지부 인수문제 과정에서 표면화가 되었다(이영걸, 2001).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강도관 조선지부의 일본인 이사들에 의해 진행된 이사권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재단법인을 주관하는 문교부장관이 1945년 7월 이사권을 행사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일제의 강제점령으로 시작된 강도관 조선지부 도장은 대한유도회의 중앙도장으로 자리 잡게 되며 갈등의 마무리가 되었다(용인대학교 무도대학 60년사 집필위원회, 2013).

1948년 7월 조선유도연맹은 대한유도연맹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다. 1950년 11월에 대한유도연맹과 대한연무관의 통합으로 대한유도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대한유도회는 현재까지 한국유도의 대표기관으로 있으며 유도 보급과 국민체력 향상, 우수한 유도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민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1946년 11월 17일 젊은 학생 유도인들이 유도발전을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111번지 조선연무관 2층에서 현재 한국중고유도연맹의 전신인 조선학생유도연맹을 만들게 된다. 이 조직을 만들기 전 1946년 10월에 조선학생유도연맹을 조직하기 위한 발기의 뜻을 모은 사람은 윤시형, 박제생, 김남수 등이었다. 이들은 조선학생유도연맹의 초대 회장으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을 추대하였다. 그 후 1954년 대한학생유도연맹으로 개칭되었으며, 1972년 한국대학유도연맹과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으로 분리되었다. 연맹의 분리가 이루어진 이유는 1968년 6월 20일에 공포된 대한체육회의 '각급연맹조직지침'에 있다.

### 3) 한국전쟁 이후부터 서울올림픽까지(1954-1988)

1955년에는 한국 유도사에서 최초의 유도 사절단이 활동하게 된다. 1955년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동안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프라하, 서독 등을 방문한 구라파유도사절단은 한국유도사절단의 유럽지역 순방이었다. 사절단은 단장 박정준 7단, 감독 석진경 8단, 주무 방영두 7단, 선수 권용

우 5단, 이석도 5단, 현동섭 4단으로 주로 유도 기술을 지도하여 한국 유도를 전파하였다.

1953년 이제황, 석진경 등에 의해 대한유도학교가 설립된다. 2년제 초급과정으로 1955년 8월에 시작되어 이후 4년제 종합학교로 승격되었다. 한국 유도사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새롭게 갈등을 만드는 시작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재단법인 대명학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석진경, 방영두 등을 제외하고 이사장 이원영, 이사 김형태, 김석근, 백동신, 이순재, 감독 이정린, 홍건균으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게 된다(용인대학교 무도대학60년사, 2013).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석진경, 방영두와 이제황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58년 4월 1일 대명학원 이사진들에 의해 이제황은 대한유도학교의 신입교장으로 선출되지만 위와 같은 유도 인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가졌다(용인대학교 무도대학60년사, 2013). 하지만 유도계의 몇 인사들의 뜻으로 여러 방면에서 학교 재건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1964년 1월 25일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 변경으로 인가를 받게 되며 이제황은 대한유도학교에서 확고히 자리 매김한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유도사에서 1960년대 대한유도회측과 대한유도학교 사이의 이어진 갈등으로 얼룩진 시기였고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유도계의 유도학교 출신들과 일반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대과별 형성의 씨앗이 된다(조용철, 2003).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1960년대의 한국 유도계는 대한유도회측과 대한유도학교 사이의 분쟁으로 얼룩진 시기였다. 기성세대 유도인에 속하는 그들의 처사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제자,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느덧 한국 유도계는 유도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유도학교계와 일반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유도회계의 이대과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대한유도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대한유도학교는 이제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고, 유도회는 유도회대로 각종유도대회의 개최, 국제대회에 선수 파견 등 한국유도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유도라는 공통의 명예를 진 실제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해가 지나면서 유도학교 출신들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지고, 그들이 각 종교

등학교 유도교사, 각 시도유도회에 진출하게 되니 한국 유도의 실세는 자연스럽게 유도학교 출신 유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이영걸, 2001). 종전에는 이제황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만이 반 유도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유도회의 조직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1967년 대한유도회 정기총회는 대한유도학교가 한국유도계의 실세임을 과시한 총회가 되었다(조용철, 200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도계의 분열은 1960년대부터 경기전적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한유도학교와 일반대학교 출신들로 나뉘어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한국 유도 경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유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재일대한유도회 소속 오승립이 은메달을 땀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는 동아대학교 출신의 조재기와 재일대한유도회 소속 박영철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대한유도학교 출신 장은경이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동아대학교의 하형주가 금메달을 계명대학교의 김재엽이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대한유도학교 출신으로는 안병근이 금메달, 황정오가 은메달, 조용철이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김재엽, 이경근이 금메달을 조용철이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1967년 베트남전에 한국이 참전하였을 때, 한국 유도 활동으로 파견된 한국유도시범단이 있었다. 한국유도시범단은 베트남 전역 한국 군인의 상징처럼 태권도 수련과 보급이 진행될 때, 평정작전(平定作戰)의 일환으로 단장 정대회, 부단장 이성우, 임원 이홍종과 최학용, 선수로 서병대, 박재호, 김세기, 이병선, 이영 등이 파견되어 민사심리전(民事心理戰)을 수행하였다(석진경, 2012).

1969년 멕시코에서 한국 유도인 중 이홍종이 A급 IJF(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공인심판을 취득하였다. 이후 1974년에 남종선, 김종달, 최인도, 권용우, 이학래가 B급 IJF공인심판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들 중 1976년 베네수엘라에서 남종선과 이학래가 A급 IJF 공인심판을 취득하여 국제심판으로서도 세계무대에 한국 유도가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 유도는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꾸준히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다.

#### 4)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현재까지(1989-2017)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유도는 김재엽과 이경근이 금메달, 조용철이 동메달을 따며 명실공히 유도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 유도의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보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8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5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3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개, 2012년 런던 올림픽 3개, 2016년 리우 올림픽 3개로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가 유도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에 유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한유도회와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sup>20)</sup>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학래(2012)는 1958년 대한유도학교의 교감이었던 이제황이 대한유도학교를 대한유도회와 독자체제로 전환하면서부터, 한국 유도는 대한유도회의 비호를 받는 일반대학 중심의 대한학생 유도연맹과 이제황을 중심으로 한 대한유도학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때부터 한국 유도계는 대한유도학교와 일반대학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으며,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하지만 대한유도학교에서 유도승단, 유도심판 자격증, 대표선수 시험 출전 등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대한유도회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즉 대한유도학교와 대한유도회는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관계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유도학교는 조직력이 미약하였지만 졸업생들이 성장하여 전국적으로 각 시도 유도회 임원, 중·고등학교 유도교사, 유도 사설체육관 관장으로 진출하면서 1980년대에 가서는 판도가 바뀌게 되었다.

대한유도학교 출신들이 대한유도회에 대거 진출하는 1980년부터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우리나라 유도계가 대한유도학교(이하 용인대학교)와 非용인대학교로 파벌이 형성되었다. 특히 1994년부터 용인대학교 총장 김정행<sup>21)</sup>이

20) 대한유도학교는 1990년 대한체육과학대학으로, 1993년 용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5년부터 대한유도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용인대학교 출신과 非용인대학교 출신의 시합 판정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국의 유도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非용인대학교 선수들은 시합에서 판정까지 가는 것은 자신의 연습 부족으로 보며 더욱더 열심히 유도 수련을 하였다. 유도 경기 특성상 한판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도 선수들은 용인대학교 출신이든 非용인대학교 출신이든지 어쨌든 열심히 시합에 임하여 세계대회에서도 한국 유도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 유도의 높아진 위상은 1995년 9월 일본 지바 마쿠하이에서 개최된 국제유도연맹(IJF)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우리나라 박용성<sup>22)</sup>이 선출됨으로서 더욱 빛을 바랬다. 박용성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유도연맹 회장을 하며 세계 유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1997년 유럽유도회에서 주장한 두 가지 색의 유도복 채택이었다. 원래 유도 시합 시 사용하던 흰색 유도복만으로는 시합의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파란색 유도복의 채택은 유도 시합 판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란 유도복의 채택은 유도 중주국인 일본에서 무도의 정신을 위배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성은 파란 도복의 사용화를 끝까지 밀고나가 사용화 시킴으로서 현재 유도 경기에서 정확한 판정의 잣대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박용성이 대략 12년간 국제유도연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 유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유도연맹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메달 개수로 5위를 하며 유도 강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 유도는 세계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유도 강국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유도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5년 당시 대한유도회장의 폭행사건, 前 유도대표팀 감독들의 횡령사건이 줄줄이 터지며 한국 유도계에 좋지 않은 이슈를 불러왔다. 즉 내실이 다져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기

---

21) 김정행(金正幸, 경상북도 포항출신, 1943-)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대한유도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2013년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되었다.

22) 박용성(朴容晟, 서울출신, 1940-)은 前두산중공업, 두산그룹 회장으로 대한유도회 회장(1985-1995), 대한체육회 회장(2009-2013), 국제유도연맹 회장(1995-2007),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2000-2006)을 역임하였다.

적인 요소만 중요히 생각한 것이다. 한국 유도가 하드웨어만 갖추고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언젠간 좋지 않게 나오기 마련이다.

잘 다져진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유도계에 유도의 본질을 깊이 추구하는 훌륭한 인재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연구 필요성에서 언급한 유도의 본질을 정확히 다시 새겨 한국 유도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유도 본래의 올바른 정신과 교육을 주창한 석진경 같은 인물이 현재 나와야 될 것이다.

## 2.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과 사상적 기반

석진경은 1912년 9월 7일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에서 아버지 석성균과 어머니 연말숙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26년 14세에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1918년 6세 때 서당에 나갔고, 7세 때 남한산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다. 서울 효제동으로 이사를 한 석진경은 재동보통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였다.

### 1) 배재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배재고등보통학교<sup>23)</sup>는 미국 감리회 소속의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며, 1885년 8월 3일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이름으로 세웠다.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학당 출신으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민족 시인 김소월, 한글학자 주시경, 독립운동가 지청천, 여운형 등이 있다.

아펜젤러는 고종(高宗)으로부터 조선의 여러 학생을 교육할 학교를 세울 뜻을 보였고, 고종은 이를 허락하여 인재를 배양하는 ‘배재학당’이라는 교명(校名)과 액(額, 학교 간판)을 내려 주었다<sup>24)</sup>.

23) 1926년 당시 고등보통학교는 5년제로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24) 배재고등학교 [www.paichai.hs.kr/](http://www.paichai.hs.kr/)

학당훈(學堂訓)은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欲爲大者 當爲人役)’고 하여 기독교적 교훈(마태복음 20장 26-28절)으로 봉사적 인물을 양성하려 하였다. 교과목으로는 한문·영어·천문·지리·생리·수학·수공·성경 등이 있었고, 그 외의 과외활동으로 연설회·토론회와 같은 의견발표 훈련을 시켰으며,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정구·야구·축구·수영 등의 운동을 시켰다. 또한 배재고보는 192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도를 가르친 한국 학교유도의 효시이기도 했다.

석진경이 입학한 1926년 배재고보는 유도를 정과(正科)로 채택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의무적으로 유도 수련을 해야 했다. 당시 서울 시내에서 유도를 정과로 하는 학교는 배재고보와 일본인 학교인 경성중학교, 용산중학교 정도가 있었다. 당시 배재고보의 유도 사범은 한진희<sup>25)</sup>로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학래(1990)의 저서에 보면 YMCA의 유도 지도자 생활을 거쳐 배재고보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보성고보의 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보성고보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종로 낙원동에서 조선강무관 유도 도장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배재고보는 민족운동 측면에서도 구한말에 교육구국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민족의식과 정의감을 굽히지 않고 용감히 항쟁하였다. 배재고보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끝까지 지켜냈고, 한국의 민족운동을 해외에까지 선전하였다.

## 2) YMCA 소속 시절

한국 YMCA는 1903년 당시의 수도 한성에 황성기독교청년회라는 명칭으로 10월 28일에 창설되었다.

한국 YMCA 창설초기에는 미국, 영국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나라에서 YMCA를 보고, 듣고 온 한국유학생들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

25) 한진희(韓軫熙, 함경도 함흥, 1895-1976)는 체육인으로서 YMCA, 보성고보, 배재고보, 중앙고보에서 유도를 지도하였으며, 조선강무관을 창설하였고 대한유도회 회장, 대한유도 학교 교장서리, 한국유도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에 자극을 주어 각종 신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 모인 국내의 선교사들과 함께 창설하였다(전택부, 1994).

한국 YMCA 청년회의 체육활동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의 보급이 1905년부터 일반사회에까지 펼쳐져 YMCA 청년회 안에 ‘체육부’를 설치하였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일본에 대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국 YMCA 창설의 목적은 지·덕·체의 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독교 정신인 예수의 가르침 즉, 자유·평등·인애의 정신을 계승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YMCA의 목적달성을 이루려 했다. 당시 YMCA의 체육은 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면에서 볼 때 단순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과 이념을 함께 전개하기 위하여 야구·농구·배구·유도·복싱 등의 각종 운동 경기를 보급하여 근대 한국 스포츠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대한YMCA연맹, 1986).

YMCA가 유도를 시작한 것은 전택부(1993)가 말하기로 1906년 이상재 선생의 “여기서 장사 백 명만 양성하자”라는 발언을 출발신호로 하여 유도는 급격한 발전을 하였다고 한다. 최초의 사범과 유파에 관해서도 도입연도와 마찬가지로 YMCA 연구자와 체육사연구자와의 의견이 다르다. 전택부(1993)는 한국YMCA의 최초 사범은 나수영이며 최초에는 유도가 아니라 유술의 일파인 천풍해세유가 나수영에 의해 지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수영은 일본 유학시절에 유도의 기술을 배우고 일본인 사범의 수제자가 된 인물로, 귀국 후 당시 YMCA학관의 학감인 김규식과 체육부 간사인 김종상이 그를 유도 사범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체육사연구자들은 최초의 YMCA사범에 관해서 최초의 사범은 유근수였으며 이후에 나수영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파에 관하여 이제황(1978)은 “근대화된 강도관 유도가 한국에 수입되어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09년으로 그 장소는 YMCA였다”하고 논하고 있다. 즉 이제황이 주장한 강도관 유도의 한국 도입설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YMCA에는 처음부터 강도관 유도가 실시되었다고 하였다(김재우, 2001).

석진경은 YMCA에서 장권 사범으로부터 유도를 교육 받았다. 또한 유도술어를 연구하여 일본식 용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꾸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

다. 특히 심판 용어까지 우리말로 개정하여 일제강점기 아래서도 우리말로 심판을 보며 경기를 진행하였다(정삼현 외3, 2010).

YMCA에서 본격적인 유도 수련을 시작하면서 석진경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였다. 그중에서도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한겨울에 실시하는 모한(冒寒) 연습이었다고 한다. 모한 연습이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하는 훈련으로 한여름에 하는 모서(冒暑) 연습과 함께 전통적인 유도 훈련 방법 중 하나였다. 극한 상황에서 훈련하여 수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석진경, 2012).

당시 모한 연습은 가장 추운 시기인 매년 1월 10일부터 20일간, 하루 중 가장 추운 새벽녘에 실시했다. 그때의 기온은 보통 섭씨 영하 17도 안팎의 혹한이 예사였다. 난방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한다. 석진경은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훈련 시간에 맞추려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곤 했다. 모한 연습 기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석진경은 개근상을 받았다. 이 같은 열성으로 석진경은 1930년 가을 배재고보 교내 유도대회에 나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당시 배재고보 유도 사범이었던 김갑기 선생으로부터 초단을 받게 되었다(석진경, 2012).

### 3) 리쓰메이칸 대학 시절

리쓰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學, Ritsumeikan University)은 일본 긴키 지방의 도시샤 대학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이다. 1900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유서 깊은 사립대학이며 일본 관서지방의 4대 사립대 중 하나이다.

석진경은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면서 과외 시간에 유도부에서 유도 수련을 하였다. 리쓰메이칸 유도부에는 무도전문학교 출신의 사범들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때 스승인 다바다 쇼타로와 이소가이 하지메를 만나게 된다. 다바다 쇼타로는 교토 무덕회 소속이며 리쓰메이칸 대학 유도부의 사범으로 일본 유도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한국인인 석진경을 차별 없이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 이소가이 하지메는 강도관 유도 창시

자 가노지고로의 수제자로 일본 간사이 지방 유도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이들로부터 수준 높은 유도를 배울 수 있었다(송영수, 2012).

입학과 함께 대학 유도부에 들어간 석진경은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10명 이상의 유도인을 상대로 맹연습을 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고등학교-전문학교 유도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었다. 석진경은 대학 1년생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에 열심히 훈련에 임하였다. 일본에서 유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는 굳히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였다(석진경, 2012).

리쓰메이칸에서의 연습이 끝나면 무도전문학교로 가서 하루 대여섯 시간을 또 연습한 결과 그는 2학년 때 3단으로 승단되었고, 학교 유도부의 리더가 되었다. 석진경은 일본 유학 5년만에 조선인 최초 유도5단을 승단하고 귀국하게 된다.

#### 4)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 이사장 시절

1951년 한국전쟁 피란 중 부산에서 유도인들은 유도 재건을 위해 뭉쳐 유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다. 특히 YMCA 유도부 시절부터 함께 운동했던 이제황, 석진경, 방영두, 이원영 등은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투철한 상무정신이 필요하며, 유도야말로 상무정신을 되살릴 스포츠라고 역설하였다. 여러 유도인들의 공감을 얻은 것은 물론이었다. 대한유도학교의 설립은 어느 한 개인에 의사에 의해서가 아닌 ‘대한유도회’라는 단체로부터 시도되었다. 대한유도회는 1950년 9·28수복 후 대한유도연맹은 연무관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양측 대표들이 유도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통합기관의 이름을 대한유도회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대한유도연맹 대신 대한유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이영걸, 2001).

대한유도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석진경은 몇몇 유도인들과 대한유도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범석을 찾아가 대한유도학교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청하고 지원을 약속받았다. 1952년 6월, 대한유도회는 피란 수도권 부산에서 각 도 지부 대표 16명과 개인 평회원 35명이 모인 가운데 공식 회의를 갖고, 유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대한유도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족 청년에게 검박(儉朴)하고 실천적인 상무(尙武)의 기풍을 양양(昂揚)하며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연마하는 유도를 적극적으로 보급 장려하고자한다.’는 창립 목적을 내세웠다(석진경, 2012).

서울로 올라온 석진경, 이제황을 비롯한 유도인들이 대한유도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교육 장소인 교사(校舍)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사(校舍)는 서울로 먼저 올라온 박정준과 이원영이 소공동 중앙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그곳을 임시 교사로 쓰기로 하였다. 재정 문제는 이범석 회장이 문교부 장관에게 예산상의 문제를 보증한다는 공문을 띄운 후 해결되었다. 1953년 6월 15일, 문교부로부터 대한유도학교 설립에 대한 정식 인가를 받았다(송일훈, 김필승, 최중균, 2014).

대한유도학교는 2년제 유도 전문 수련기관으로 출발했다. 입학 자격은 정규 대학 1년 이상을 수료하고 유도 2단 이상인 자로, 대한유도회 도지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개별 심사하여 선발했다(용인대학교 무도대학 60년사 집필 편집위원회, 2013). 그 결과 약 30여 명 정도의 우수한 학생이 대한유도학교에 입학했으며, 1954년 3월에는 제1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이후 매년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우수한 전문 유도 지도자로 성장했다.

석진경은 대한유도학교 개교와 함께 교수로서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오직 유도 지도에만 전념했다. 그가 맡은 과목은 실기전공과목인 유도 기술 연구와 이론, 선택과목인 격기 발달사, 일반 교양과목인 법학 통론이었다. 석진경이 가장 신경 쓰고 강조한 것은 유도 기술 자체보다는 유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올바른 생활 태도였다(석진경, 2012).

## 5) 동아대학교 교수 시절

1946년 11월 1일 남조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년후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동아학숙, 동아대학 설립을 인가받고 동아대학으로 교명을 정식

으로 변경하였다.

1948년 동아대학교 체육부를 창설하였고 1956년 유도부를 창설하여 동아대학교 설립자 정재환<sup>26)</sup>이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유학할 당시 동기생인 석진경을 초빙교수로 하여 10명으로 유도부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힘든 유학 생활에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였고, 석진경의 유도를 좋아해서 경기가 있을 때와 연습장으로 자주 찾아와 학업으로 인해 지친 머리를 식혔다고 한다(석진경, 2012). 석진경은 1957년부터 1978년까지 21년간 봉직했다.

---

26) 정재환(鄭在煥, 경남 남해 출생, 1906-1976)은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법률학과를 졸업하였고, 1952년 한국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동아대학교를 설립하였다.

### Ⅲ.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

석진경의 교육 활동은 크게 학교 설립 및 교육을 통한 활동과 경기단체 설립 및 해외 유도 교육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석진경은 1936년 리쓰메이칸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돌아와 1938년 제주 농업학교 공민교사, 제주 경찰서 유도 사범으로 유도 교육에 첫 발을 내딛었다. 1947년 조선유도연맹(現 대한유도회)을 발족하고 1953년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를 설립한다. 1955년 구라과유도사절단을 결성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한국 유도 순회 지도를 간다. 1959년 동아대학교 유도부 초대 감독에 취임한다.

이런 활동들은 석진경 자신의 유도 경력에 일환일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삶을 유지하는 직업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민족적 상무정신을 내세워 국가사회의 발전, 질서와 안녕의 이바지를 위한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석진경은 평소 ‘유도가 나의 전 생활이며 또 나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오락이다.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후부터 착실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유도 지도자로 평생을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유도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학자로 큰 족적을 남겼다.

석진경에게 유도는 친절(親切)이었다. 친절이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정성스런 것을 의미한다. 그는 유도를 교육할 때 어디까지나 순수하여야 하고, 아무런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친절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유도를 통해 평생 친절을 생활해 온 그는 자신의 종교는 유도이며 수련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진리였다.

아래 표는 석진경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2012년 석진경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문집<sup>27)</sup>에 그의 가르침에 대해 서술한 것을 요약하여 보았다.

27) 여상환 외7(2012). 『한국 유도의 큰 스승, 유성 석진경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문집』, 청아출판사.

표- 2. 제자들이 묘사한 석진경

| 이름 / 직책                    | 내용   |
|----------------------------|--|
| 김규하 /<br>재미유도원로            |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유도의 정신을 배웠다. 유도는 힘과 힘의 대결 보다는 온유함을 통해 강한 자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유도는 “Gentle Way” 라고 하셨다.  |
| 김위생 /<br>前미국유도<br>협회회장     | 석진경 선생님의 지도 방법은 직접 몸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지도 방법도 무척 부드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아주 강압적으로 지도하진 않으셨다. 학생들이 술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 같이 운동을 하면 우리들이 도저히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월등하셨다.   |
| 김의태 /<br>도쿄올림픽<br>동메달리스트   | 선생님은 운동을 하면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잘 한다, 수고한다, 그 정도가 다였다.<br>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편이다. 동아대 유도부 출신 중에 조재기와 하형주가 나에게서 직접 유도 기술을 배웠다. 특히 조재기의 경우에는 내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으로 연수를 와서 3년간 내 지도를 받았다. 그는 아주 열심히 했다. 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
| 김종환 /<br>한국유도유단<br>자회 사무총장 |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할 때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등을 다독여 주셨는데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따뜻하셨다. 그리고 항상 허허웃으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
| 남종선 /<br>용인대<br>명예교수       |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유도 선수로 앞날이 힘들다고 느꼈을 때 “이 사람, 그게 무슨 소린가. 선수로 대성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의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셨다.   |
| 박규직 /<br>前 한국유도            | 선생님은 참 인자하셨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고루 눈여겨보신 것 같다. 어린 제자들이  |

|                               |  |
|-------------------------------|--|
| <p>유단자회 회장</p>                | <p>감히 범접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큰 어른이셨는데도, 중앙도장에서 운동하는 제자들을 한 번씩은 꼭 불러서 운동을 같이 하셨다. 평소에 말씀은 없으시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것이다. 그리고 웬만해선 화를 내는 일이 없으셨다. 내 기억에도 노하신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p> <p>유도의 진수는 ‘유능제강’이라는 말씀과 함께 ‘술선수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타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으셨다.</p>                        |
| <p>박길순<br/>前 재미유도회<br/>회장</p> | <p>6척 장신의 건장한 모습과 과묵하신 가운데에서도 유도 기술을 지도하시면서 쉴 새 없이 도전하는 상대를 바꿔가며 연습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땀을 연신 닦으시며 너무나도 열심히 지도하셨다. 중앙도장은 마치 석 선생님의 정신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식사는 야채와 바다에서 나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콩과 보리, 현미 등을 먹을 것, 마음을 비우고 과체중이 안 되도록 조심할 것, 물은 생수와 녹차를 마시며 매일 산책을 할 것, 건강을 다져 장수하라는 것이었다.</p> |
| <p>박명신 /<br/>유도 9단</p>        | <p>선생님은 체육과 학생이 유도 실기와 이론 수업을 받고 학점을 취득해도 유도 단증을 주시는 데는 엄격하고 인색하시어 유단자로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인품이 온화하여 평시에 화를 내지 않으시며, 청빈하시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시고 불편부당하시며 일찍이 유도 보조 운동의 생활화를 주장하셨다. 현재의 사회생활체육을 일찍부터 강조하신 것이다.</p>   |
| <p>석준호 /<br/>석진경 차남</p>       | <p>아버님께서서는 참으로 소탈하고 꾸밈이 없는 분이셨다. 오래전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절에도 설거지, 걸레질을 마치 도장에서 유도 수련을 하듯 열심히 하시며 어머니의 어려움을 나누셨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매사에 성실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본인도 항상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열과 성을 다하셨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찾아가고 격려해 주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아셨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문무</p>   |

|  |  |
|--|--|
|  | <p>(文武)를 겸비한 천품의 위엄과 깊이 있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으로 당당하게 대하셨으며, 어려운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항상 소탈한 웃음과 꾸밈 없는 태도로 기쁨을 나누시고 위로를 주셨다.</p> <p>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유도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하는 제자들을 항상 엄히 꾸짖으셨다. 문무겸전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이야말로 무도인들이 지향할 길이요, 무도인들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신념으로, 제자들의 깊이 있고 성숙한 인격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아버님의 제자들이 유도계,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활약을 하는 것도 그러한 지도 철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p> |
| <p>성보석 /<br/>유도 8단</p>                   | <p>선생님은 항상 어떤 도장에서 가르치더라도 유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심을 다해 정말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가르침이었다.</p>  |
| <p>송영수 /<br/>前 대한유도회<br/>이사</p>          | <p>그 시절에도 늘 자중자애 하는 유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는 자상함을 보여 주셨다.</p> <p>우리 일반대학 재학생들은 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유도 분야는 물론 학업 성취로 사회에 진출하여 유도가 아닌 다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그 역할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석진경 선생님이었다. 석 선생님은 아쉬워 하시면서도 당신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일반대학 출신에게 운동은 물론 사회 진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신 것이다.</p> <p>처음부터 기대하시던 유도 수련을 겸한 학업 정진으로 사회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자위해 본다.</p>                              |
| <p>안종환 /<br/>제1회<br/>아시아유도<br/>선수권대회</p> | <p>내 나름대로 평생 지켜 온 선생님의 가르침은 “언제 어디서나 대의(大義)에 충실하라”, “항상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지마라” 하는 말씀이었고, 특히 해외 진출 등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훈제는 “언행을 무겁게 하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여색을</p>   |

|  |   |
|--|---|
| <p>준우승</p>                                 | <p>경계하라.” 등 ‘세 뿌리’를 조심하라는 당부이었다. 이토록 여러 제자들에게 아버지처럼, 집안의 큰 어른처럼 다정다감하셨던 생전의 스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p>   |
| <p>양동자 /<br/>前세계체육학<br/>교수 총연합회<br/>총재</p> | <p>예리한 통찰력과 예지 능력을 갖춘 선각자였던 그는 한국 유도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 지육, 덕육, 체육의 동서 철학을 겸비한 현인으로 교육 상담가였고, 많은 제자들에게 ‘인애하신 아버지’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인 에고(ego)의 욕망을 버리고 한국 유도의 총화를 위하여 ‘성로의 삶’, 그 길을 걸으셨다.</p> <p>그는 초심자들에게 “즐거운 낙법이 즐거운 유도 수련으로 이어진다”라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한국 유도의 새로운 방법과 발전 전략의 핵심은 ‘즐거운 유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다.</p> <p>스승은 또 많은 것을 물으시고 상세하게 들으신 후 숭고한 지침과 교훈을 주셨다. 이를 요약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양 군은 모든 현상을 통찰하고 이를 성실하게 배우고 깨우쳐 모든 현실을 초월한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배움과 연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라! 그리하여 고매한 성품과 인격, 지혜를 토대로 우수한 유도인, 무도인, 체육인, 교육 지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자신이 택한 종교에서 참 신앙인이 되어라!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다.</p> <p>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책임 지라”라고 말씀하셨다. 1년 후 나는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스승을 다시 만났다. 상담 결과는 동일했다.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 이 과정을 돌이켜볼 때 스승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오늘날의 ‘교육상담 심리학의 진수’를 통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p> |

이처럼 13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석진경은 화를 내지 않는 과묵한 성격으로 인자하며 항상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고 돈에 연연하지 말고 자중자애(自重自愛) 및 대의(大義)에 충실하라고 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 1. 학교 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

석진경의 생애는 우리나라 유도 발전을 위한 교육실천 활동으로 평생을 헌신하였다. 석진경은 1937년 제주경찰서 유도 사범으로 첫 지도자의 길을 시작하여 같은 해 제주농업학교 공민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쳤다. 1938년 함경남도 함흥 영생중학교로 전직한 석진경은 7년간 재직하며 매주 유도를 정과 2시간, 과외 2시간 씩 총 4시간을 가르쳤다. 1953년 유도인들과 2년제 대한유도학교 설립하여 3년간 교수를 지냈으며, 1957년 동아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한다. 1960년 숭실대학교에서 3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유도부를 이끌었고 1968년 고려대학교 유도 강사로 8년간 활동하다가. 1975년 12월 뇌졸중이 발병하여 1990년 11월 고인이 되기까지 15년간 긴 투병 생활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석진경의 유도 교육 활동이 활발했고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한유도학교와 동아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석진경은 대한유도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아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가 생각하는 기본학문 즉 국어, 철학, 법학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부시켰다. 대한유도학교에서는 자신이 강의하던 법학통론, 유도기술연구와 이론, 격기 발달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유도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부가 우선시 되는 유도선수를 육성한 것이다. 둘째, 일본의 유도 기술을 습득하되 우리의 고유 기술인 각저(角觚)와 씨름을 통해 한국인에 맞는 유도기술과 한국용어로 만든 기술명칭 및 심판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한 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도를 통해 영웅이 되지 않고 성인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유도는 울곧은 정신,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받는 영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인의 삶,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육에 장식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세 뿌리’ 조심으로 언행을 무겁게 하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여색을 경계 하라는 당부와 언제 어디서나 대의에 충실하고, 항상 수신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였다.

## 1) 대한유도학교(現 용인대학교) 설립 시절

대한유도학교의 설립은 대한유도연맹 각 도지부 대표 16명, 개인 평회원 35명이 모여 한국전쟁 당시 1952년 6월 피란 수도인 부산에서 결의되었다(이학래, 1990). 대한민국의 유도 재건을 위해 유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

석진경은 유도학교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도가 국내적으로 수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일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도 그 필요성을 느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유도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어 여기에 대비하고자 유도 지도자 양성기관인 대한유도학교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유도계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석진경은 1956년 「유도 한국의 석금」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953년 설립된 대한유도학교는 1956년 4월 2년제 초급대학 과정에서 4년제 각종학교로 승격한다.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유도 실력 초단 이상을 구비한 자이며 유도 3단 이상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졸업생을 50여 명을 배출하였고 90여명이 재학 중에 있으니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유도계는 물론 해외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문교부에서는 도의(道義) 교육에 유도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하여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수련하게 하였으니 앞날의 발전이 대단히 기대된다. 현재 서울 시내와 지방의 다수 학교에서 유도를 정과 수업으로 실시하고 있어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학생유도

대회에는 40여 교가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석진경은 대한유도학교의 설립 취지를 확실하게 언급하였으며 전문적인 유도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큰 뜻이 있었다. 특히 지(智)·덕(德)·체(體)의 조화로운 교육을 지상 과제로 삼은 석진경은 실기교육에 더하여 정신교육의 중요성 및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일반대학 수준의 체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김의환, 2012). 즉, 전문적인 기술 연마와 지도자 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체계화시키고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화된 것이 대한유도학교의 탄생이었다.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 체육대학으로서의 용인대학교(前 대한유도학교)의 발생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학래, 2012).

석진경은 『논어』 「효경」에 나오는 “공자가 제자에게 이르기를 고전을 읽어 뿌리를 찾고, 성심을 다해 충의와 예절을 실천하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대의(大義)에 충실하고, 물욕을 버려라, 몸가짐과 언행을 무겁게 해 유도인의 품위를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는 수련에 임하는 제자들에게 ‘유도는 남을 이기고 해치는 운동이 아니다. 힘으로 이기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라 힘에 굴복한 것뿐이다(석진경, 1981). 진정으로 남을 이기는 운동은 덕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마음으로 복종케 해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하였다.

정삼현이 설명한 석진경의 강의노트에는

柔術(유술)-> 柔道(유도)-> 精力善用(정력선용)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정신적: 自他共榮(자타공영)

“낙법으로 시작해서 낙법으로 끝난다.”

기술적: 柔能制剛(유능제강)

“밀면 당기고 당기면 민다”<sup>28)</sup>

---

28) 정삼현이 알려준 석진경 강의 노트 메모(정삼현 인터뷰 2016.7.22.).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유도 수업 시간에 항상 기술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더 강조하며 수업하였다. 첫째, 유도 수련은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련하도록 교육하였으며 둘째, 도복을 깨끗이 입고 상대와 맞잡고 수행하는 무도로서 예의를 우선시 하였고 셋째, 자신과 타인 모두 함께 공동의 번영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유도의 방어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낙법을 치고 일어나는 것도 방어로 간주하여 상대를 서로 도와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힘을 통한 유도가 아닌 부드러운 유도를 강조하였다.

석진경은 심기력(心氣力) 일치의 결기를 강조했다. ‘심’은 무상무념(無想無念), 무아무심(無我無心)으로 마음은 몸의 단련을 통해서 심신통합(心身統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마음이 조용하고 맑은 심경에 이르게 된다. ‘기’는 왕성한 정신 작용이다. 승부는 기에 의해 좌우된다. 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 유도로 기를 연마하고 기로 이긴 후 기로 제압한다. ‘력’은 살아 있는 힘과 행동하는 힘을 의미한다(이병익, 1977). 유도에서 힘이 나타남은 기술이며 뛰어난 체력이 기술의 효과와 멋을 증가시킨다. 또한 유도를 지도할 때 기술, 체력, 정신력의 세 가지 요인 중 정신적인 면을 강조했다.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체력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정신력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유도인이 수련을 통해 무심(無心)의 최고 경지를 깨닫고 심신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활기활체(活氣活體)와 심신자재(心身自在)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기술, 체력, 정신력이 혼연일체가 될 때 묘기(妙技)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조재기, 2000).

대한유도학교 첫 개교 당시 졸업 이수 학점은 81학점으로 1학년은 40학점, 2학년은 41학점을 필요로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토요일에는 5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석진경은 대한유도학교가 개교하는 날부터 일반교양과목 법학개론, 법학통론과 유도전공과목인 유도기술연구, 선택과목인 격기발달사 담당교수로 재직하였다(김의환, 2012).

석진경은 격기발달사 수업에서 ‘격기의 연원(淵源)<sup>29)</sup>이 유도의 연원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유도의 바탕이 되는 유술을 적수공권, 즉 맨손·맨주먹으로 치고, 차고, 매치고, 조르고, 꺾고, 비틀어 누르는 등의 공격법과 받고, 풀고, 비키는 등의 방어법이 조화를 이루어 무기를 지니거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적을 제압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도는 유술을 근본으로 레슬링, 복싱, 씨름, 검술, 기타 무술의 격기 기술을 가장 과학적이며 체육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으로 보았다(조재기, 2012).

그는 유도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 ‘유도 수련을 통해서 올바른과 그릇됨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심신통합적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도의 교육적 가치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보편타당성을 깊게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석진경에게 대한유도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를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지도한 교수, 기술지도 시 핵심적인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 오른쪽 기술 보다 왼쪽 기술의 익히기를 강조하여 좌우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 항상 대련의 상대로서 시범을 보여주던 것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도하는 학생을 가르칠 때 다치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임을 강조하였고 꾸중을 하거나 혼내야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훈계와 격려를 같이 하였다고 한다.

## 2) 동아대학교 교수 시절

석진경은 1957년 동아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과 함께 동아대학교에 유도부를 창단하고 1978년까지 21년간 봉직하였다.

동아대학교는 석진경과 함께 리쓰메이칸 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한 정재환이 1946년 남조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 1년 후에 문교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교명을 동아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정재환은 1948년 동아대

---

29) 연원이란 사물의 근원, 또는 사물이 성립되어 있는 그 바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도의 연원이란 유도의 근원으로 유도가 만들어진 바탕을 말하고 있다(조재기, 2000).

학교 체육부를 개설하고 1957년 당시 대한유도회 회장 겸 국제유도연맹 부회장이었던 석진경을 초빙하였다.

정재환이 석진경에게 동아대학교 유도부를 부탁한 이유는 동아대학교 발전되어가고 있는 성장기(1950~1970)<sup>30)</sup>에 학생들에게 견인불발의 기백을 심는데 유도만한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유도 실력은 물론 유학 시절부터 눈여겨 보아온 석진경의 인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정재환은 석진경에게 동아대학교 유도부와 교수직을 부탁한 것이다.

석진경은 동아대학교 유도부에서 ‘나의 제2의 유도 인생을 펼쳐보자’라고 다짐하며 자신이 가진 철학과 기술적인 면 모두 쏟아놓고 가리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특히 기술적인 면을 동아대에서 강조했다<sup>31)</sup> 그는 ‘메치기와 굳히기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연습 순서를 매우 중요시했다. 메치기는 발기술, 허리기술, 손기술 연습을 먼저하고 누우면서 던지는 기술에 더하여 굳히기 연습을 시켰다. 굳히기는 누르기를 주로 먼저 하고 조르기, 꺾기를 다음으로 연습시켰다. 연결기술은 자기의 기술에서 자기의 기술로 연결을 계속하며, 다음으로 상대의 기술에서 자기의 기술로 연결기술을 변화하라고 주문하였다.

기술연습의 순서는 기초적인 기술에서 응용적인 기술로 낙범이 용이하고 안전한 기술에서부터 연습하여 비교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기술로 나아갔다. 짓기<sup>32)</sup>가 간단하고 쉽게 걸리며 또 체력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기술에서 복잡하고 강한 체력을 요하는 기술로 연습한다(김덕수, 1997). 또 여러 가지 기술 습득에서 특정한 기술 습득으로 시합이나 연습에서 잘 사용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확률이 큰 기술에서 중요도가 적은 기술 등으로 순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석진경은 유도 지도 단계에서 발전 단계를 유도의 띠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유도에서 백띠는 무단, 흑띠는 초단에서 5단, 홍백띠는 6단에서 8단, 마지막으로 홍띠는 9단 이상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유도에 입문하면 백색 띠

30) 동아대학교 사이트 <https://www.donga.ac.kr/>

31) 동아대학교에서의 석진경의 교육은 동아대학교 직속 제자인 정삼현과의 인터뷰(2016.7.21. 1차, 2016.7.22. 2차) 내용을 통해 기술하였다.

32) 짓기는 유도 메치기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순서는 기올이기, 짓기, 걸기로 이어진다.

를 매고 유도 기초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예의, 자세, 잡기, 걸기, 몸 쓰기, 기울이기, 짓기, 걸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낙법을 환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석진경은 동아대학교에서 유도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도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체조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였다고 한다.

석선생님은 본 운동(유도)전에 체조를 많이 강조하셨어...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했을 때 배우셨던 걸로 보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일본 귀족층 자녀들이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 공부하러 갔는데 기계에 관한 것, 농사하는 것도 배우러 갔는데 농사지으러 나가니까 모 심으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하러 가기 전에 체조를 항상 하고 일을 다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체조를 하고 마감했다는 거야...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체조를 배우고와서 군대에서 병식체조를 하게 되고, 작은 공간에서도 배울 수 있는 체조를 만들어 널리 전파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서든 체조를 꼭 하여 몸을 단련시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지...

[정삼현 교수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년7월21일]

석진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유도인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동아대학교는 유도기술 중 발다리후리기를 대학의 전통 기술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술로 완성시켰다. 발다리후리기는 석진경의 특기기술이다. 석진경의 발다리후리기 기술이 동아대학교 출신 세계적 유도인 정학균, 정삼현, 조재기, 하형주, 유성연으로 까지 이어지게 전수되어 왔다. 정삼현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석선생님은 발다리후리기를 엄청나게 잘했어. 다른 기술도 전부 잘 하셨지만 특히 굳히기랑 발다리후리기를 엄청 잘 하셨지. 그래서 정학균 선생님이랑 나한테 엄청 전수해주셨지. 그리고 정학균 선생은 키가 그리 안 큰데 나랑 조재기, 하형주는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또 발다리후리기가 키 큰 사람이 유리한 기술이니까 계속해서 내려온거지... 석선생님도 엄청 크시거든. 나는 그 기술에 감아치기까지 더하라고 석선생님이 주문하셨어... 그래서 석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십만 번 이상 익히기 연습을 했을거야... 그리고 석선생님 앞에서 기술을 선보이니 얼굴이 엄청 환해지셨어... 근데 또 야단치면서 조용하게 '그게 아니자나 정균 다시해봐'라고 하셨지.

[정삼현 교수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년7월21일]

위와 같이 발다리후리기는 동아대학교 유도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로서 정학균은 신장이 작지만 발다리후리기를 특기로 1963년 제12회 한국개인종합유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위력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발다리후리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삼현은 거구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발다리감아치기의 위력을 발휘하여 1966년 도쿄 유니버시아드 헤비급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신장이 큰 조재기도 발다리후리기를 주무기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무제한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위의 세 사람은 스승의 특기를 이어받아 전통 기술로 갈고 닦아 발다리후리기 기술을 3대에 걸쳐 완성시켰다(정삼현, 2012). 이러한 전통과 문화의 대물림을 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석진경의 유도 지도론의 실제적 자료로 발다리후리기 연습방법을 이론적으로 기술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국 어떤 유도 기술이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시간을 소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 연마의 횟수도 목표치를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 석진경의 유도 교육 실체이다. 즉 유도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술

원리를 머리로만 이해해서도 되지 않는다. 유도의 기술은 먼저 몸으로 익혀 정형화 된 자세를 습관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기회가 포착되면 무아의 경지에서 심기력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석진경은 말했다.

석진경의 유도 지도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통한 순서와 횟수를 중시했다. 미시적 접근은 기본기인 예의, 자세, 이동, 낙법, 잡기, 몸 쓰기, 헐기, 기울이기, 짓기, 걸기, 매치기, 굳히기의 순서에 따라 신체의 합리적 동작을 이해하고 생각하여 유도의 기술로 표현하게 했다(조재기, 2008). 거시적 접근은 연습의 순서를 습득, 정숙, 숙달, 정묘의 4단계로 정의하고 연습 횟수 달성과 수련 시간의 반복으로 술(術)에서 도(道)에 이르게 했다. 그것은 매일 1,000번의 익히기 연습 반복과 상위, 호각, 하위, 약속, 수 연습 등의 자유 연습으로 하루 3시간씩 연간 333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였을 때 10,000시간이 나오며 그때 유도의 진수를 익힐 수 있다(석진경, 1981).

석진경은 동아대학교 제자들에게 유도 기술과 운동법만을 교육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겸손하며 검소한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을 꼭 도와주라고 하였다. 정삼현은 석진경의 따뜻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당시에는 월급을 봉투에 넣어줬어... 지금은 통장으로 보내 주자나. 근데 봉투에 월급을 받으시면 꼭 봉투 3, 4개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이건 누구꺼, 이건 누구꺼’ 하면서 월급을 쪼개어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누구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우리 친지, 이건 우리 누구’ 그러면서 ‘정군도 나중에 월급 받으면 꼭 힘들게 사는 이웃을 챙겨줘라’ 하셨지...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나고... 또 제자들이랑 같이 저기 부전 시장에 가서 값싼 죽을 많이 사주셨지... 단팔죽, 호박죽을 제일 자주 잡수셨지 제자들이 가끔 사기기도 했고(웃음)... 그러면서 ‘총장은 이 맛있는 걸 왜 먹냐고 오지도 않아. 너희들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먹고, 이곳저곳 다니고, 이사람 저사람 만나보고, 이것도 받아드리고 저것도 받아드리고 살아라' 하셨지.

[정삼현 교수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년7월22]

정삼현이 이야기 했듯이 석진경은 유도 실기뿐만이 아닌 따뜻한 인성교육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격렬한 격투 형식을 취하는 유도는 잘못하면 조잡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는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을 극복하여 언제나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을 항상 숙일 줄 아는 예의라고 했다. 예법은 예의의 근본적인 내적 마음의 육성이라 할 것이다. 예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기술을 단련하고 마음을 수양하면 거기에서 유도의 정신도 길러진다고 하였다.

## 2. 단체 조직을 통한 교육 활동

### 1) 조선유도연맹(現 대한유도회) 이사 시절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5년 9월 15일 재경 유단자 10여명이 한국의 유도중추기관 결성을 위하여 YMCA회관에 모였다. 이때 발기인은 1938년에 일제의 강도관 조선지부에 통합되었던 사설도장 대표 8명과 경찰 유도 대표 2명이다(이학래, 1989). 이들은 YMCA대표 이인적, 석진경, 조선무도관 대표 김윤식, 김상조, 조선강무관 대표 김근찬, 김병룡, 조선연무관 대표 배경열, 이동수, 경찰유도 대표 배경립, 박정준이었다(조선일보, 1934.5.8.).

이 모임에서 한국 유도의 중추기관이 되는 조직의 명칭을 조선유도연맹으로 할 것과 회관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11번지 소재 강도관 조선지부를 인수

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강도관 조선지부 인수라는 큰 임무를 위임받은 석진경과 이원영은 수입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강도관 조선지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당시 강도관 조선지부 측에서는 도장 인수조건으로 삼만원이란 금액을 요구하였고 조선유도연맹 측 대표들은 이에 불응하였다(이영걸, 2001).

강도관 조선지부 측은 3일 후에 다시 면담을 요구하였고 3일 뒤에 다시 찾아 가보니 강도관 조선지부에는 조선연무관의 간관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이학래, 1989). 조선연무관은 일본 주오대학을 나온 이경석이 1931년 수송동에 세웠던 유도 도장이며, 조선유도연맹 발기인 총회에도 연무관 대표로 나와 강도관 조선지부 인수 건을 함께 의결했던 인물이다. 이경석이 개인적으로 강도관 조선지부에 3만원을 주고 인수를 하였던 것이다. 조선연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도 4개의 단체에서는 항의하였지만 이경석은 자신이 매입하였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 후 1947년 7월 을지로 1가 63번지에 있던 학원건물을 인수하여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조선유도연맹 간관을 걸게 되어 한국 최초의 유도 중앙 도장이 생기게 되었다(김상철, 2000). 초대 회장에는 광복군 출신으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대첩의 주역이었던 이범석<sup>33)</sup>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연맹이 결성된 이래 유도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해 온 조선유도연맹은 1947년 12월 제2회 조선유도연맹 총회를 겸한 전국 유도인 대표자회의를 거쳐 통일 조직을 탄생시켰다. 이는 조국 재건과 더불어 인류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 통합기관이었다(이학래, 1990). 1948년 5월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해 7월 명칭을 대한유도연맹으로 변경했다. 대한유도연맹이 탄생하자 이를 중심으로 유도인이 총집결해 지방에 도지부(道支部)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사회는 여전히 어지럽고 유도계 내부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분열의 불씨가 남아 있었지만, 석진경은 오로지 한국 유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

33) 이범석(李範奭, 서울 출생, 1900-1972)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군인, 정치인으로 제1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매진하였다. 그는 먼저 일본식 유도 용어를 전부 우리말로 바꾸고 기술 용어, 심판 용어 등의 일제 잔재를 모두 청산하려고 하였다. 일본식 유도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해방 전 YMCA의 장권 사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방해로 꾸준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유도 용어의 한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일부 유도인들은 굳이 일본에서 받아들인 유도를 번거롭게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석진경은 유도가 ‘왜놈들이나 하는 운동’이라는 오해를 떨쳐버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민족운동으로 유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도 용어의 한글화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석진경, 1981).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유도를 우리만의 용어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전국적으로 유도의 보급 및 대중화시키는 방안도 대한유도연맹이 추진해야하는 큰 사업 중 하나였다.

두 번째로 대한유도연맹에서 석진경이 주도로 추진한 사업은 전국의 유도 유단자들을 새로이 심사하여 과거에 취득한 단과 급을 백지화하고 그동안 확실하게 확인된 경기 실적 및 수련 연한을 기준으로 새로운 단급을 부여하는 것이었다(이학래, 1990). 대한유도연맹이 결성된 이후 전국 12만 6천여 명의 유도인을 산하에 표용하였지만, 일제 강점기 존재했던 많은 유도 계파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의 실력으로 단급의 매겨 혼란을 초래했다. 즉, 통일된 기준으로 확실하게 공인단급을 재심사하여 재정비를 필요로 하였다. 1948년 11월 대한유도연맹 부회장 한진회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5,840여 명의 공인단급 심사가 이루어졌다. 석진경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때 국내 유일의 7단이자 최고단으로 승단되었다(김덕수, 1997).

석진경은 위에서와 같이 대한유도연맹의 통합된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승단·승급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굳히기 특강 또한 교육하였다. 당시 한국의 유도는 일본에 비해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지만 굳히기 즉, 누워서하는 유도는 약하였다. 석진경은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유학을 하며 유도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배웠던 것이 굳히기였다. 굳히기에는 상대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누르기와 상대의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는 조르기, 상대의 관절을 굽혀지지 않는 반대로 비트는 꺾기로 세 부분이 있다

(김덕수, 1997). 그중 조르기과 격기는 부상당할 경우가 크므로 배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르기를 우선적으로 터득하게 한다.

석진경의 굳히기 교육은 힘쓰기와 몸쓰기를 전체적으로 익숙하게 하여 근육이 발달하며 인내력이 늘어나 매사에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굳히기에서 누르기 연습에는 위험이 없으므로 여러 면에서 보면 먼저 연습하는데 있어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유도인들은 당시에 그 러했고 현재에도 서서하는 기술인 화려한 메치기에는 흥미를 가지지만 화려하지 않고 동작도 메치기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은 굳히기에는 연습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정삼현, 2010). 석진경은 당시에 그 점을 간파하여 대한유도연맹에서 전국적으로 유도를 보급할 때 굳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석진경은 대한유도회에서 국내적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했다면 1961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sup>34</sup>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석진경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유도연맹 부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연맹 내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석진경, 1981).

## 2) 구라파유도사절단(歐羅巴柔道使節團) 감독 시절

1948년 스위스 산모리스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대회에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여 이한호<sup>35</sup> 박사를 만나게 되어, 1955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한국 유도가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해외유도시범단으로서 ‘구라파유도사절단’의 파견 결정은 한국 유도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파견의 목적도 단지 한국 유도 보급 활동만이 아닌 유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임석원, 조문기, 2009). 유도사절단이 유럽 국가들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일본 유도인들의 시기와 방

34) 국제유도연맹은 1948년 발족된 유럽유도연맹을 근간으로 한다. 1952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유도연맹 총회에서 일본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때 일본 강도관 관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명칭이 국제유도연맹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가입하였다.

35) 이한호(李漢浩, 함경남도 원산 출생, 1895-1960)는 항일독립투사, 초대 서독총영사, 경제사절단장으로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유도 클럽을 조직하여 유도 보급을 시작하였다(김기풍, 2013).

해가 있었지만, 유도사절단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오늘날 한국 유도가 기득권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기풍, 2013).

이한호의 노력으로 1950년 7월 유도사절단의 파송을 계획하였으나 한국전쟁이 6월에 발발하여 연기되고 말았다. 전쟁 후 1954년 6월 이한호에게 파송을 원하는 서신과 1955년 3월 스위스유도유단자회장 W. 스템프커스와 스위스유도연합회장으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아 동년 7월 8일 출국하게 되었다(이학래, 1990). 하지만 사절단은 출국 전 파견에 수용되는 대략 1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평소 대한유도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경찰상무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주어 파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 문제가 해결되자 대한유도회는 유도사절단의 구성원을 결정하기 위해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선발된 인원은 8단 석진경, 7단 박정준, 방영두, 5단 권용우, 이석도, 4단 현동섭, 6명이었다.

구라파유도사절단(이하 유도사절단)은 1955년 4월 결단식을 마치자마자 유럽으로 떠나기 전 2개월간의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합숙 숙소는 서울 시내의 남산호텔에 차렸다. 유도사절단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소공동에 위치한 중앙 도장으로 이동하였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체력과 기술 훈련을 했다. 또한 대한유도학교 강의실에서 유도 기술 이론 공부와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회화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유도사절단은 유도계로서는 첫째의 진출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사절단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껴 2달간의 합숙훈련에 열심히 임하였다.

석진경은 당시 한국 유도와 일본 유도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자 이론적 바탕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유도가 단순히 일본의 강도관 유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신라 화랑도 정신을 계승한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삼국시대에 시작된 우리 고유의 무술 수박(手搏)이 유술의 연원이고, 고려 중엽 이루 꽃피운 유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노 지고로가 집대성한 강도관 유도로 발전되었다는 ‘유도 한국 기원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조재기, 2008). 이러한 이론은 정확한 사료가 부족하여 억측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일본과

는 다른 한국 유도 고유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유럽에서 개최된 한국 유도 사절단의 유도 강습회에서는 이한호가 화랑도 정신에 기원한 한국 유도 연원의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재조명되어 한국 유도가 새롭게 비추어졌다(정삼현, 2010).

유도사절단은 1955년 7월 13일 스위스에 도착하여 일주일간 스위스 각 도시를 순회하며 유도 지도를 하였다. 유도사절단은 7일 후인 7월 20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1회 유럽 하계유도강습회에 참가했다. 유럽 하계유도강습회는 1948년 유럽유도연맹이 런던에서 결성된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었다. 유럽유도연맹은 강습회를 통하여 유럽 유도의 수준을 높이고 유도 대중화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도가 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되고 있었던 반면, 그들로부터 유도를 전수받은 유럽에서는 날로 실력이 높아지고 있었다(석진경, 1981). 심지어 유도 종주국인 일본을 뛰어넘을 기세의 유럽 유도인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 유도 교육을 받고자 한국 유도사절단을 초청한 것은 한국 유도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7월 20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전반기 유도 강습회에는 유럽 각국에서 70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하였다. 유도사절단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유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석진경은 유도의 기본자세, 잡기의 방향 및 원리, 굳히기, 발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1주일의 전반기 강습이 끝난 뒤 수강생들은 한국의 유도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면 현재까지 받아왔던 강습 중 제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7월 26일부터 시작 된 후반기 강습에는 소문을 듣고 130여명의 수강생들이 찾아왔다. 7월31일 전·후반기 강습을 모두 마친 뒤 수강생에게 승단 및 승급 심사를 보았다. 수강생에게 증여된 증서에는 한글과 태극문양이 선명하게 들어갔으며 도복에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또한 그들은 한국 유도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유도 수련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엄숙히 다짐하였다(김기풍, 2013).

유도사절단은 취리히 등에서 일주일간 그룹을 나누어 분담지도를 한 뒤 8월17일 스위스, 프랑스, 독일 3개국의 국경 지대인 바젤에서 강습회를 이어나갔다. 바젤에서는 스위스 경찰국의 초청을 받아 친선경기의 형식으로 강습

회가 진행되었다. 석진경이 먼저 메치기와 굳히기 기술을 선보였다. 이후 이석도<sup>36)</sup>가 혼자서 스위스 경찰관 16명을 상대하는 시합이 이루어졌다. 상대들도 모두 유도자였지만 이석도는 16명을 9분 만에 제압하였다. 한국 유도의 우수성이 1천여 명의 관중을 매운 체육관에서 입증된 순간이었다.

유도사절단은 스위스에서 한 달간 더 머물며 수도인 베른과 13곳의 도시에서 840여 명의 수강생에게 유도 교육을 계속하였다. 유도사절단은 3개월 동안 유럽에 머물렀는데 그 중 2개월을 스위스에 머물렀다.

유도사절단은 1955년 9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여 9일간 강습회 및 시합에 참여하였고 9월22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였다. 프랑스의 유도는 유도 본산지인 일본 그것도 가노 지고로 강도관의 일본인 사범들로부터 직접 지도 받아온 유럽의 최강자였다. 일본인 사범들과 그들이 직접 지도하였던 프랑스 유도인들은 유도사절단과의 시합에서 절대 밀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도사절단 전원 6명이 프랑스 유도 국가대표 6명과의 2번씩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여 12점차라는 큰 점수로 자만하고 있던 프랑스, 일본 유도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석진경, 1981). 이 경기를 지켜보았던 2천여 명의 프랑스 관중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유도사절단의 강습회에 유도 교육을 받으러 왔다. 석진경은 ‘굳히기 본’과 일본에서는 교육되지 않는 ‘되치기 본’을 방영두와 완성하여 프랑스 유도인들에게 보급하였다.

9월 27일, 유도사절단은 벨기에의 브뤼셀, 안트베르펜, 켄트에서 5일간 순회 지도를 하고 10월 1일 네덜란드 하를렘에 도착하여 로테르담으로 돌며 6일간 순회 지도를 하였다. 귀국을 앞두고 이한호가 있는 서독으로 넘어가 일주일간 귀국 준비를 하고 10월 21일 106일간의 순회 지도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유도사절단이 유럽에 머문 시간은 3개월가량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집중적이고 성실한 교육으로 인해 한국 유도는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도사절단은 한국 유도 최초의 해외 사절단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도가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결과 한국 유도지도자들 특

---

36) 이석도(李碩圖, 대구 출생. 1928-2008)는 1958년 도쿄아시안게임 시범종목이었던 유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88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경근의 아버지이다.

히 석진경으로부터 교육받은 제자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 IV. 석진경 유도사상의 특징

### 1. 석진경에게 내재된 기초사상

석진경의 사상적 기초는 유교사상, 박애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게 주입된 위와 같은 사상을 전부 고찰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그의 차남과 제자들의 증언을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석진경에게 주입된 유교사상은 박애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에 기초를 이루기도 하였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동은 석진경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선민중들에게 올바른 유도사상을 정립시키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석진경에게 주입된 유교사상과 박애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을 자신의 유도사상에 기초로 삼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유교사상

석진경은 할아버지 석보환(石輔煥)으로부터 각별한 관리 아래 엄격한 가정환경 속에서 3대가 함께 어우러져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끈끈한 정을 쌓으며 철저하게 봉건적으로 자랐다. 석보환은 신학문보다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유교만한 학문이 없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평생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기에 석진경을 일곱 살 때부터 서당에 보내 우리말 공부보다 『천자문』 및 『사서삼경』을 먼저 익히게 하였다(정삼현, 2010). 이후 석진경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까지 연이어서 유교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배움을 습득하였다. 특히 석진경은 석보환으로부터 충효사상의 함양을 중요시 하는 것을 교육받아 부모와 국가에 헌신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과 국가 의식을 공고히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석진경은 1926년 배재고보에 입학하면서 석보환이 강요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수기치인(修己治人)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이 나라를 잃은 주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신학문을 터득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여상환, 2012). 이후 석진경은 신학문 공부와 유도 수련을 병행할 수 있는 일본의 리쓰메이칸 대학 법학부로 진학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유도가 자신에게 맞다는 것을 깨닫고 유도를 통하여 진충보국(盡忠報國)하는 길을 택한다.

## 2) 박애주의

위의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석진경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남달리 지극했다는 점과 남을 돕고 배려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박애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박애주의란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차별을 버리고 인간애, 윤리적으로는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박애주의의 종류에는 감정으로서의 박애, 원리로서의 박애, 조건으로서의 박애가 있다. 석진경의 박애주의 사상은 감정으로서의 박애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그 공통점을 찾으려는 하나의 심리적 사실을 가리킨다. 인간이 가지는 공통의 감정은 장소와 범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체의 범위에서는 단체정신으로, 집단에서는 연대감으로, 민족의 범위에서는 민족주의로, 국가에서는 애국주의로 나타난다(여상환, 2012).

석진경은 배재고보와 YMCA에서 유도를 통한 단체정신과 집단 연대감을 형성하였고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에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졸업 후 귀국하여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유도를 통해 진충보국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치안대에서 경리부장직을 맡으며 해국활동을 하였다.

박애주의 삶이란 구도자(求道者)의 삶이자 형극의 길이다(여상환, 2012). 석진경은 일생을 이 길로 정진하여 유성<sup>37)</sup>의 경지에 올라 많은 유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

1912년 태어난 석진경은 1909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의 폭력적이며 공포스러운 정치로부터 독립운동으로 맞서다 처형, 체포, 감금당하는 동족들의 참상을 목격하며 성장했다. 석진경에게 비친 박애주의는 이를 오히려 사랑으로 극복하는 반면교사가 되어 민족의식으로 나타났다. 동족이 겪는 아픈 현실, 불안, 공포, 굶주림과 절망에 슬픔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석진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민족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어 건강한 내일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신이 등대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석진경 몸 속 깊이 내재된 박애주의를 통해 진중보국하겠다는 것이었다.

### 3) 민족주의

석진경이 힘들고 고달팠던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와 같이 항상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한국 유도에 대한 책임감이 내면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일본 유학은 국내에 정체되어 있는 유도를 하기 보다는 유도의 본지인 일본으로 넘어가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장 적합한 길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막강한 실력을 가진 일본 선수들과 유도 시합에 임할 때마다 ‘내가 지는 것은 곧 나의 조국이 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 유도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석진경이 한국으로 귀국 후 일제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황국신민화 정책 창씨개명 등은 민족 말살정책과 조선신궁봉찬대회 등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석진경이 결심한 두가지 활동 방향이 있었다. 첫째, 교편생활을 통한 민족계몽운동과 둘째, YMCA를 통해 유도를 지도 및 보급하여 한국 유도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삼현, 2012).

해방 후 석진경은 어지러운 형국이 하루빨리 질서와 평안을 되찾기 위해

---

37) 유성(柔聖)은 유도10단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

서는 강한 신체와 바른 정신을 강조하는 유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6일, 석진경의 유도 스승인 YMCA 장권 사범을 대장으로 많은 유도계 인사들은 서울 휘문중학교 강당에 체육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건국치안대<sup>38)</sup>를 조직하는 행사를 열었다. 석진경도 경리부장을 맡아 서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건국치안대는 정국 혼란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석진경을 비롯하여 건국치안대에 합류한 많은 체육인들은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건민(健民) 체육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족세력의 대동단결을 목적에 두었다. 그리하여 건국치안대 산하로 건국학도대, 청년대, 노동대 등이 집결하였다(유성연, 2015).

석진경은 ‘유도정신을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상무정신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을 막론하고 상무정신이 강할 때는 나라와 민족정신은 질소(質素)하고 강건(強健)하여 부강(富強)하고 안태(安泰)했고, 상무정신이 비약하였을 때는 사치, 안일, 향락의 퇴폐적 정신이 만연해 외적의 침략과 국치를 초래했다고 하였다.

## 2. 유도사상

### 1) 가노 지고로의 술(術)에서 도(道)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좋은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마음이 생각을 하게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에 따라 복이 오고 화를 당하기도 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로 석진경은 이를 좌우명

38) 건국치안대(建國治安隊)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조직한 임시경찰기구이다. 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흡수되었다.

으로 삼아 한평생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다.

석진경은 1956년 잡지 『신태양』의 「유도 한국의 석금」이라는 기고문에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다’라는 부제를 통해 유도를 스포츠로 정의하고, 심신통합적 유도 철학을 설파하였다. 또한 ‘유도란 유능제강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력과 기술력, 정신력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며,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조화로 다듬어진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상대의 강인함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순응하면서 힘의 역학을 이용해 부드러운 동작으로 접근하여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기는 것이 바로 유도라고 하였다.

석진경은 위와 같이 유도의 수련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고 강조하면서, 유도가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유도가 술(術)에서 도(道)로 전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며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데 끝이 없듯이 유도 수련에도 끝이 없다’고 했다. 유도의 최고 단(段)인 10단을 승단하더라도 유도 수련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도 수련의 길은 요원하고 어떤 누구라도 유도를 완벽하게 수련하는 천재는 없을 것이다(정삼현 외2, 2010).

유도 수련의 가장 큰 요건 중 하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유도 기술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수만 번의 기술 연습을 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 또한 근대 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등에 있어 의의가 있는 것처럼 유도가 술(術)에서 도(道)로 진전하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면만 구사된 것이 아닌 정신수양을 바탕으로 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석진경은 유도를 수련하는데 있어 기술에만 그치지 않고 도의(道義)가 부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득된 유도정신을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유성연, 2012).

석진경의 위와 같은 사상은 유도 창시자 가노 지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유도는 유술(柔術)을 그 모태로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단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발생한 유술이 시대 변천에 따라 유도로 발전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일본 유도 창시자 가노 지고로를 마음속 스승으로 존경했다. 석진경은 늘 ‘가노 지고로야말로 내 인생의 좌표요,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는 인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가노 지고로의 강도관유도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어 갔던 유도정신이 있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메이지유신 이래 가노 지고로 선생으로 귀일(歸一)되는 유도의 정립이다. 즉 그 전까지 적을 격파하는 기술수준에 머물렀던 유술을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여러 형태의 잡기 기술의 일종이 아니라 도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도의 경지에 끌어올린 것이다(조재기 외2, 2006).

가노 지고로는 1902년 유도의 보급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유술에서 유도로의 전환을 설명했다. 그는 유술은 본래 승패를 가리는 무기(武技)이기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못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더하여 젊은이들에게 수련하게 만들어 심신을 달련하는 방법으로 창출되었다고 한다. 유술은 새롭게 변형시킨 이유는 힘과 힘이 서로 맞붙는 것이 기술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술(術)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주창한 유도는 승패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여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로부터 기술을 수련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리의 도(道)로서 마음 수양의 방법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유도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정행, 2005).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예시예종(禮始禮終),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 정력(精力)을 나라와 이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력선용(精力善用), 자기를 완성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하는 자타공영(自他共榮)’ 등 술에서 도의 경지로 이끌어 간 것이 일본의 유도정신이라고 외쳤던 것이 가노 지고로의 사상체계이다. 그는 도쿄대학 교수, 일본체육회 회장, 고등사범학교 교장의 영향력, 본인의 인품 및 유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산으로 젊은이들의 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청년교육의 기본으로 반드시 문무겸전(文武兼全)을 강조하고 유도와 검도를 필수과목으로 정해 일정한 과정을 이수했을 때 기본적인 체력을 겸비한 문무겸전의 국사(國士)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여상환, 2012).

위와 같은 원동력으로 일본은 체력과 정신, 지성과 야성이 병행되는 특유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유도’라 하면 근본은 일본에

서 창시되고 일본을 종주국으로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석진경은 위와 같이 유도 교육으로 지덕체를 겸비한 인물이 한국에도 나와야한다고 역설하며 유도의 도(道)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쟁이 있는 경기시합과 달리 도(道)의 개념에서는 승리와 패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즉 시합에서의 경쟁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고, 도(道)를 통한 교육은 최고로 향해가는 과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생동안 자신의 행로를 꾸준히 차분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임석원 외1, 2009). 결국 유도를 통해 교육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유도를 통한 성인(聖人)으로

석진경은 유도를 통해 올곧은 정신,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받는 영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인의 삶,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략가(戰略家)와 경세가(經世家)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전략가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세가 불리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아는데 반해, 경세가는 목전의 이익에 집착해 대세를 그르치기 쉽다고 했다(여상환, 2012). 예를 들어 전략가와 경세가가 함께 길을 걷다가 도중에 깡패를 만나 억울하게 한 대 맞았다면 전략가는 맞은 곳을 비비며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경세가는 맞은 것을 분풀이 하다가 자기 갈 길을 놓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유도를 통해 성인이 되라’는 석진경의 말은 곧 전략가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뿐만 아니라 유도로 힘을 키운 제자들에게 힘과 기량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 시정잡배들의 폭력 수단으로 전략될 것을 우려하여 유도를 통해 성인이 되기를 더욱 강조했다.

정삼현은 석진경이 공자가 말한 ‘성인의 용기’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옛 사람들은 선비를 흔히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위 등급의 선비는 글과 붓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간 등급의 선비는 대중을 현혹하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하급 선비는 무력을 사용한다. 즉 무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하급 선비나 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석진경은 공자의 아래와 같은 일화를 덧붙여 이야기하며 성인의 삶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공자가 한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광성인이란 인물이 양호라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찾아다니다 마침 공자의 외양이 양호와 비슷했다. 광성인은 공자를 양호로 착각하고 공자를 죽이려고 숙소를 둘러쌌다. 그런데 공자는 아무렇지 않게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는 이 모습이 신기하여 공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공자는 '바다에 용이 살아도 조업에 나서는 것이 어부의 용기이고, 산중에 호랑이가 살아도 사냥을 하는 것은 사냥꾼의 용기이며, 칼을 들이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열사의 용기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며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큰 재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이다'라고 대답했다. 더하여 자로에게 그저 천명을 관망하라고 권유하였다. 잠시 후 광성인은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공자에게 사죄했다고 한다<sup>39)</sup>. 석진경은 성인에 있어 용기란 운명을 알고 운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험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태연히 견디는 자세라고 하였다. 즉, 천명을 관망하고 따르는 태도인 것이다.

석진경도 이러한 '성인의 용기'가 한 번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시대를 지내며 4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운명처럼 살아남으면서 '성인의 용기'를 터득한 것이다. '성인의 용기'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儒學)에서는 흔히 '하늘은 덕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였다. 성인의 덕이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성인을 보호한다고 했다. 성인은 갈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며 무력을 저지르지 않아도 위력이 있다. 싸우지 않아도 적을 굴복시키며,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유도는 석진경에게 사회정의 구현의 도구이자 구국의 무기 내지는 조국 근대화 촉진제가 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정삼현, 2010).

---

39) 논어 제9장 자한2

유도는 나의 종교이자 학문이다. 유(柔)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는 법이 없고,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이는 석진경이 동아대학교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또한 유도인은 모름지기 물의 부드러움을 사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의 부드러움으로 만용을 휘두르는 용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원숙한 전인적인 품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석진경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가 어떠한 성인의 삶을 살았고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 석진경의 대한유도학교 제자였던 김위생은 그가 유도학교에서 손을 놓은 이후에도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 자신이 편견이나 편애가 절대 없었고 항상 똑같이 그들을 대하며 오직 유도 하나로만 판단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김위생이 말한 유도학교에서 손을 놓았다는 것은 석진경이 구라파유도사절단으로 유럽을 다녀온 이후 당시 유도학교 교장이었던 이제황과의 마찰이 있어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석진경은 유도학교의 제자들을 항상 자식같이 품었으면 제자들 또한 석진경을 자주 찾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언 및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유도 선수로 우리나라 최초 유도 올림픽메달리스트이자 재일교포였던 김의태는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1955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가난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석진경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있을까라고 했다. 김의태가 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을 챙기는 일이 없었는데 석진경은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친지들과 주위 유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베풀었다고 한다. 석진경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김의태는 낯선 타지의 생활을 하면서 그를 만날 때 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석진경의 유도학교 제자 박상표는 그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사회 진출과 취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유도학교 도장에서 ‘박 군, 이력서 가져와’라고 한 뒤 박상표의 재능에 맞는 직장을 구해줬다고

한다. 동아대학교 제자 정삼현도 대학을 졸업할 때 석진경이 추천한 곳에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석진경의 평소 뜻을 받은 유도인들의 화합 정신 덕분에 석진경이 한국 최초 유도10단으로 등극되었다고 본다.

‘유도로 영웅이 되지 말고, 성인이 되라’는 석진경의 유도 정신은 한국 유도가 세계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그가 자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준 유도를 통한 성인의 삶은 앞으로 유도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유도 의 재조명이다. 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우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출현하게 될 미래 목적과의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John Huizinga는 ‘역사란 하나의 문화가 자신들의 과거에 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정신형식’이라고 하였다. 즉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역사적 인물을 탐구하는 작업은 그 인물의 사상과 당시 사회의 시대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박철홍, 2002). 스포츠와 무도의 역사를 조명할 때 사람의 역사가 빠질 수 없듯이 유도의 역사 역시 그러하다. 한국 유도의 역사 안에 신타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맥은 우리나라 유도가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도는 사람과 사람이 몸을 맞대어 붙잡고 일대일로 하는 운동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예절과 이해를 강조한다(양동자, 2012). 이로 인해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끈끈한 벗의 사이는 한국 유도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석진경의 유도 교육 활동과 사상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석진경의 자서전과 유도 관련 문헌 및 신문, 잡지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한 생애사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석진경과 관련된 인물인 그의 차남 석준호와 동아대학교 제자인 정삼현을 심층인터뷰 하여 그의 생애사 전체를 조망해봄으로서 사실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석진경의 유도교육 활동은 제주 농업학교에서 지도자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함경남도 함흥 영생중학교, 수도경찰학교 등을 거치며 한국유도지도자 양성을 절실히 느끼고 뜻이 맞는 유도인들과 대한유도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유도학교에서 석진경은 제자들에게 기본학문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론 성적이 좋지 않을시 유도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제자들에게 언행을 무겁게 하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여색을 경계하라는 ‘세 뿌리’ 조심의 당부와 언제 어디서나 대의에 충실하고, 항상 수신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구라파유도사절단의 감독이 되어 석진경은 한국 유도를 유럽에 전파하였다. 대략 2천여 명의 유럽 유도인들이 그에게 교육을 받았다. 또한 유도에 흥미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되치기 본을 만들었다. 이 결과 한국 유도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 유도 후배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석진경은 구라파유도사절단을 통해 유럽 유도인들에게 유도 교육을 지도한 결과 한국 유도의 강함을 입증하여 우리나라 유도인들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만의 유도 기술 형태인 되치기본의 완성은 한국 유도의 특정한 기술로서 현재까지 많은 유도인들에게 교육되어 지고 있다. 귀국 후 1961년 대한유도회 회장, 1962년 국제유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유도의 국제화에 앞장섰다.

한편 21년간 동아대학교에 봉직하면서 부산의 우수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 냈다. 훗날 동아대학교 제자들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노년에는 유도계의 파벌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국적으로 유도 교육에만 집중하여 한국 유도계에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유도가 세계 정상에 서기까지 일찍이 세계에 나가 국경을 넘나들며 자신을 체찍질했던 석진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석진경의 교육은 크게 ‘기본공부’, ‘바른 인성’, ‘체조의 중요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유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라고 하였다.

첫째, 그는 유도 수련을 통해 올바른 그릇됨의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요소가 심적인 공부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기본교양 과목을 차분히 공부시켰다.

둘째, 유도를 수련하기 전에 바른 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공부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들게 하고 예의를 강조하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공부와 바른 인성이 쌓이면 천천히 체조부터 시작하여 본(本) 운동에 임하게 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석진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운동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도 스포츠 정책 중 하나로 학교체육을 강화하여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비전으로 학생선수들의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서 2017년부터 적용한 ‘직전 2개 학기 평균학점 C제로 미만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항으로 앞으로 대학 선수가 C제로 학점의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시험 출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약 50년 전 석진경의 교육관이 현대의 체육교육 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새삼 기억할 수 있다.

석진경 유도사상의 기초는 유도를 통한 한민족자강운동의 실천이 민족주의와 박애주의를 통하여 내면에 체화되었다. 1912년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석진경은 배재고보와 YMCA에서 유도 수련을 시작하였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에 유학하여 법학과 강도관 유도를 배웠고, 귀국 후 건국치안대 경리부장과 6·25, 산업화, 민주화 전 세대를 겪었으며 용인대, 동아대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그의 사상적 기반을 다졌다.

석진경의 유도사상은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유도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유도가 일본의 가노 지고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을 받아드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고안하였다. 가노 지고로는 전장(戰場)에서 이용하는 격투형태의 유술(柔術)을 교육적인 면을 입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수련자들을 깨우칠 수 있게 유도(柔道)로 변형시켰다. 그리하여 유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 올바른 곳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석진경은 한국에 유도를 보급하며 가노 지고로와 같이 육체적인 면만이 아닌 정신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즉 유도에 있어서는 한국형 가노 지고로라

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석진경은 유도를 통해 올곧은 정신,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받는 영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인의 삶을 강조하였다. 석진경은 자신에게 있어 유도는 종교이자 학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柔)는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는 법이 없고,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였다. 즉 유도를 수련하여 나 자신이 강해지면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고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 겸손해지며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유도계가 유도의 경기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파벌싸움에 급급한 시점에서 석진경이 강조한 ‘기본공부’, ‘바른인성’, ‘체조의 중요성’, ‘올바른 유도의 사용’, ‘유도를 통한 성인이 되는 삶’은 전국의 모든 유도인들에게 되새기어 유도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이고 참신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유도인들은 유도만을 위해 온몸을 던진 석진경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의 유도정신과 교육법은 후학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평생 유도에 매진한 석진경의 삶을 앞으로서 우리나라 유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유도 종사자들 및 학생과 유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를 통해 참다운 유도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겉으로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였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석진경이다. 즉 외유내강의 실천이라는 석진경의 덕목을 앞으로 유도를 배우는 젊은 지도자 및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한다. 석진경은 말없는 실천가이자 도덕가였다. 유도를 통해 그런 경지에 오른 석진경에 대한 연구가 유도인들 더 나아가 체육인들에게 까지 전해지길 바란다. 석진경이 후세 유도인들을 위해 남겼던 말로 글을 마치겠다.

학교와 스승을 떠나서 대동단결하여 나의 대에 이루지  
못한 유도 선진국의 꽃을 후배 여러분들이 이루어주기  
바란다

[석진경\_동아일보 인터뷰 중\_1988년]

## <참고문헌>

- 강충식(1981). **유도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국제유도연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jf.org/>
- 김경민(2002). **한국 중·고등학교 유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김경배(2011). **경찰호신 체포술**. 서울: 상아기획.
- 김규수, 한성철, 최종삼, 윤익선(1996). 유도의 되치기 본에 대한 고찰. **무도연소지**, 7(1), 135-167.
- 김기풍(2013). **한국 최초의 해외 유도시범단 ‘구라파유도사절단’의 배경과 활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김덕수(1997). **精說 柔道正鑑**. 서울: 판.
- 김동규(1989). **韓國柔道院의 發達過程에 관한 研究**.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동규, 김상헌, 조미숙(2004). 小崗 閔寬植의 체육활동 및 체육사상.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127-149.
- 김명권(2009). **유도인의 삶을 통해 본 한국근현대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강원.
- 김병극(2004). **講道館 유도사상과 유도의 스포츠화 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북.
- 김상철(2000). **유도론**. 서울: 교학연구사.
- 김원갑(2003). **일제하 한국YMCA의 사회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 김은영(2013). 이상백의 체육활동(2).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4), 163-178.
- 김일수(2008). **현대유도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반성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북.
- 김영남(2012). **야구인 장훈의 생애와 체육활동**.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재범(2015). **유도인들의 생애를 통한 한국유도의 교육사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김재우(2001). **일제하 한국YMCA체육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제범(1999). **柔道創始者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정행, 조용철(2005). **현대유도론**. 서울: 대한미디어.
- 김주연(2003). **한국여자 유도의 도입에 관한 사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진영(2000). **전통유도와 스포츠화 된 유도가 학생들의 자기존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전남.
- 김형원(1995). **柔道競技場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나영일, 곽낙현, 박귀순(2017). **한국의 스포츠학 70년**.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대한유도회 공식 홈페이지. <http://judo.sports.or.kr/>
- 문상희(2000). **유도경기 금지사항의 변천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전북.
- 박경호(2002). **유도기술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박성자(2006). **유도 전공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박순진, 조용철(2001). 유도의 스포츠화 과정에 나타난 의미. **대한무도학회지**, 3(1), 133-139.
- 박윤기(2012). **YMCA 유도로 바라본 한국 유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박철홍(2002). **인물연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단상**. 2002 한국체육철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 방영두(1959). **구라파 유도기행**. 대한유도회.
- 석진경(2012). **나의 인생, 나의 유도 : 유성 석진경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자서전**. 1981년 <스포츠동아> 자전적 에세이 편집본, 파주: 청아출판.
- 성상수(2006). **일제하 YMCA체육의 조직과 보급운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환, 최성진(2011). 여운형의 체육활동과 사상. **체육사학회지**, 16(1), 55-65.

- 송일훈, 김필승, 최종균(2014). 한국유도 발달양상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함의 - 대한유도학교 창립 배경을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16(3), 13-28.
- 송준홍(1999). **유도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송해신(2004). **무도유도와 스포츠유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오주호(2007). **가노지고로의 사상이 현대유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60년사 집필편집위원회(2013).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60년사**. 서울: 레인보우북스.
- 유성연(2009). **무도로서 유도문화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유성연(2009). 무도에 내재된 가노지고로 유도사상의 정립과 유도의 보편적 가치.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1), 135-146.
- 유성연(2015). 체육인들의 건국치안대 설립과 활동. **한국체육학회지**, 54(6), 1-10.
- 이두일(2010). **현대유도의 기원 및 한국 유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북.
- 이병규, 유성연(2013). 한국 농구의 태두(泰斗) 정산운의 체육활동과 사상. **한국체육학회지**, 52(3), 27-37.
- 이병익(1977). **韓國柔道發達史의 研究**.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상우(2010). **마라도너 남승룡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성진(2001). 일제하 한국YMCA 유도발전과정. **대한무도학회지**, 3(1), 141-150.
- 이영걸(2001). **한판에 도전한다 : 기와 도를 잡아라**.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제황(1978). **신유도**. 서울: 수상계사.
- 이학래(1990). **한국유도발달사**. 서울: 보경문화사.
- 이흥중(1977). **韓國柔道와 發展過程에 對한 考察**.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임석원, 조문기(2009). '구라파유도기행'으로 본 한국 최초의 유도사절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0), 93-103.
- 정삼현(1968). **한국유도의 기원 및 그 발달에 관한 합목적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정삼현, 조재기, 하형주, 유성연(2010). 한국인 최초 유도10단 석진경의 생애와 사상. **한국체육학회지**, 49(1), 25-36.
- 조문기, 임석원(2012). 일제강점기 경파(鏡波) 한진희(韓軫熙)의 유도 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1), 39-48.
- 조영진(2011). **유도경기장 규정 변경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기.
- 조용철(2003). **한국유도경기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용철, 송일훈(2011). **신유도론 강독서**. 서울: 레인보우북스.
- 조재기(2008). 가노지고로 유도의 교육사상. **한국체육학회지**, 47(6), 77-86.
- 조재기, 유성연, 김유수(2006). 일본유도의 역사와 기본술리.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대회지**, 27-34.
- 조준호(2008). **인천체육의 사회사적 변천과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기.
- 조준호(2016). 여운형과 체육인들의 건국치안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1(3).
- 최관용(2004). 민간유도장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3(3), 213-217.
- 최종삼, 최용배(1999). 무단통치기(1910~1919)의 한국유도경기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1), 69-77.
- 최종삼, 최용배(2000). 문화통치기의 유도에 관한 고찰. **대한무도학회지**, 2(1), 59-68.
- 최종삼, 박경호(2001). 강도관 유도기술에 적용된 유술 유파와 기술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0(1), 273-279.
-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 공식 홈페이지. <http://www.kjhsjudo.or.kr/>

## **Abstract**

# **Judo Educator Seok Jin Kyeong's Thoughts and Activities**

HyeonWoong Ro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present, the reason that the Korean Judo is able to achieve today 's development is the development of the Judo technique, the Judo base spread by the Judo effort of many inducers, the training of the talent, and the study of the Judo theory in various sports fields. Currently, however, the Korean Judo field is being reported as an inconvenient issue, and it is in a state of stagnation due to the long fighting fac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houghts and activities of the guiding entrants who have set the cornerstone for Korean Judo to rise to the current level in order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Among the many guiding planners, there was Seok Jin Kyeong(1912-1990) who came to the 10th dan of judo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is regard, I examined what kind of influence and contribution he mad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Judo, focusing on the thoughts of judo and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h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Judo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oughts of Seok Jin Kyeong, an indispensable person in Korean Judo.

For this study, biographical analysis method based on literary review

was adopted based on autobiography of Seok Jin Kyeong, Guidance literature, newspapers and magazines. In addition, realistic value by interviewing his son Seok Jun Ho, who is a person related to Seok Jin Kyeong, and Jeong Sam Hyun, a disciple of Dong-A University.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Judo thoughts of Seok Jin Kyeong was embodied in the inside through the activities such as the following activities of nationalism and philanthropy by the practice of The Korean people's movement through Judo. Born in 1912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family of Korea, Seok Jin Kyeong started his education at YMCA and studied at the Ritsumeikan University in Japan. After returning home, Seok Jin Kyeong did not deny that Judo was a martial art made by Japan. It was designed to take on the emotion of our country by accepting the guided thoughts of Kano Jigoro. He also worked with the head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of Korea, and found an ideological foundation through Korean War,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eok Jin Kyeong emphasized the life of the saint, not the hero who gives the oppression to the opponent. In other words, do not practice actively when I strengthened myself, but went down to a lower place to live a humble life.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eok Jin Kyeong started at the Jeju Agricultural School and took the first step of leadership. Seok Jin Kyeong, who felt the desire to cultivate the Korean Judo leader, established the Judo school in 1953. At the Judo school, the students were taught basic academic studies and personality education thoroughly.

In 1955, Seok Jin Kyeong was the director of the 'The Europe Judo Delegation', spreading the Korean Judo to Europe, establishing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Judo to advance to the world, and distributing the rewritable version of the Judo technique. After returning to Korea, he became the first director of the Dong-A University Judo Department in 1957 and served as a professor for 18 years, laying the foundations of Busan Judo Education. In 1961, he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Korea Judo Association, and in 1962 he was the vice-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He did not want the faction of the judo system to be divided in his old age. In addition, Japanese Judo technique and referee terminology were newly rearranged in Korean language with Korean scholar Lee Geug Ro, and the Judo organizations which remained trace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integrated into the Chosun Judo Federation, and the Korean Judo was spread both at home and abroad.

Present of Korean Judo field emphasized only the sporting elements of Judo and the urgency of fighting the faction for the benefit of the individual, the 'Basic study', 'Right personality', 'Importance of gymnastics', and 'Life as an saint through Judo' can be a fundamental and fresh message that can lead to the integration of guiding gears to all Judo people across the country.

---

Keywords : Seok Jin Kyeong, judo training, judo thought, judo activity,  
Student Number : 2013-23389